

개회식

| | |
|-------------|-----------------------------------------------------------------------------------------------------------------------------------------------------------------------------------------------------------------------------------------------------------------------------------------------------------------|
| 14:00~14: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성결대학교 교수) • 환영사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 축사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 • 격려사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
|-------------|-----------------------------------------------------------------------------------------------------------------------------------------------------------------------------------------------------------------------------------------------------------------------------------------------------------------|

좌장 **박연규** 아시아교정포럼 인문교정연구소장(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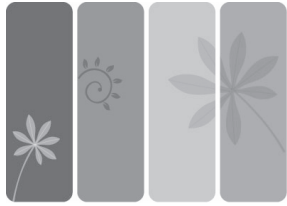
| | |
|-------------|--------------------------------------------------------------------------------------------------------------------------------------------------------------------------------------------------------------|
| 14:20~15:00 |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주제발표 1</div> 11 |
| | <p>사형수의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토론 이웅혁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 이동원 SBS 시사교양본부 PD |

| | |
|-------------|-----------------------------------------------------------------------------------------------------------------------------------------------------------------------------------------------------------------------------------------------------------------------------|
| 15:10~15:50 |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주제발표 2</div> 29 |
| | <p>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법학박사) • 발표 장인기 소망교도소 (상담학박사) • 토론 김진아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재활팀 과장 • 토론 이연담 경기대학교 교수 |

| | |
|-------------|----------------------------------------------------------------------------------------------------------------------------------------------------------------------------------------------------------------|
| 16:00~16:40 |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주제발표 3</div> 65 |
| | <p>출소자 사회정착 보호요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신연희 성결대학교 교수 • 토론 노병란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 토론 조윤오 동국대학교 교수 |

마무리 및 종합 토론

| | |
|-------------|-------------------------------------------------------------------------------------------------------------------------|
| 16:4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사회 김병배 경기대 교수 |
|-------------|-------------------------------------------------------------------------------------------------------------------------|



개 회 사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곳에 오신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은 그동안 수고한 바를 서로 격려하기에 적절한 계절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응원하는 훈훈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를 수형자 교화 사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계시고 아시아교정포럼에 각별한 애정을 주시는 천주교 서울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37회 (사)아시아교정포럼의 추계공동학술대회는 “수형자의 삶과 형벌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학술대회의 독특성은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범죄자 및 수형자는 특정 이슈에 대한 객체나 대상이 아니며 주체가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어서 이슈를 구성하고 해결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형자가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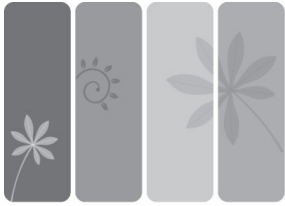
개별 수형자를 존중하는 이러한 접근은 인간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있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형수와 수형자에게도 동일하게 실천하시는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숭고한 뜻과도 부합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수형자 문제에 대해 여러 영역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형벌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의 성장을 돕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협력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고하여 연구하고 공동여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시는 세 분 발제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여섯 분의

토론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바쁜 공무 중에도 축사로 오늘 행사와 학회 회원들을 격려해 주신 법무부 교정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3. 12. 8.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신 연 희



환 영 사

오랜 시간 교정에 관한 정책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며 훌륭한 정책을 제안해 온 (사)아시아교정포럼과 함께 학술대회를 주최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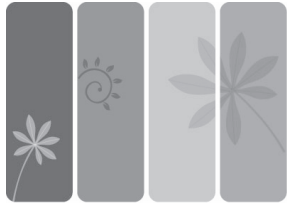
범죄자의 교정교화는 교정본부, 교정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어느 소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부임해 왔을 때,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정위원으로 오래 활동해 온 분께서 “저희 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환영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소’라고 서슴없이 소장에게 말할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는 교정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어느 소의 과장님은, “우리 식구들인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수용자를 같은 식구라고 여기며 관심을 기울이시는 교정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아시아교정포럼의 학계의 여러분이 자신의 학문 분야만이 아니라, 교정과 관련하여 연계시키며 그 토대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애정과 열정을 가진 민관학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 수용자가 교정되고, 출소자의 재범률도 낮출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는 사실 그러한 분들이 이미 50여 년 전에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위원회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주로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뜻 있는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정공무원, 출소자, 피해자까지도 후원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또 여러 방면의 시민들이 함께 지지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수형자의 삶과 형벌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역시 이 연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합쳐져 충분히 스며든다면, 교정행정 발전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수용자들의 교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애써오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 대 일 신부



축 사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아시아교정포럼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제37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아시아교정포럼 이백철 이사장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I

친애하는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은 2007년 창립된 이후 토론의 장인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교정현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수형자의 삶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형벌과 범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형자의 삶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아시아교정포럼의 새로운 시도에 응원과 감사를 표합니다.

III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은 1945년 해방 이후, 법무부 행정국으로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교정행정은 과거 통제와 감시 위주의 획일적 처우에서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게는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하는 등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인성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가 출소한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V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수형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교정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정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귀중한 고견들 또한 교정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대한민국 교정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 12. 8.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 용 해

주제발표 1

사형수의 삶

현 대 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형수의 삶

-참고:박형민/ 김대근,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개인적 경험과 관점

2023년 12월 8일, (사)아시아교정포럼, 현대일

<명칭과 법적지위>

- 사형수, 최고수, 사형확정자
-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 4)
- 구 형행법에서 정식 명칭 없었고, 그에 따른 처우에 관한 규정도 없었음
- 2007년 형집행법 개정: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2016년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의 지위
- 실질 수형자로서 기결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명칭과 법적 지위>

- "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2조 2)
-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미결수의 지위를 가진다고들 하고, 복장 역시 미결수 복장을 입고 있으나,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은 형의 확정 여부이지, 형의 집행 완료 여부가 아님.**
- 사형확정자는 이미 형이 확정되어 있음

<명칭과 법적 지위>

- 미결수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에 확정이 될 경우, 구속되어 있던 기간(미결구금기간) 역시 징역, 금고, 벌금 등에 산입.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형벌로 집행중.
- 기결수의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그 형벌이 집행되어가고, 완료되면 석방
- 사형확정자, 형이 확정이 되었지만, 그 형벌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독특한(?) 지위를 부여함.
- 그렇다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 법적으로 형벌의 의미가 있다고 엄밀히 말할 수 있는가?
-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법 41조)
-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사형수 역시 기결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명칭과 법적 지위>

| | 기결 | 미결 | 사형확정자 |
|------------|---------|--------------|------------------------|
| 참관 | 가능 | 할 수 없다 | 할 수 없다 |
| 접견횟수 | 처우급에 따라 | 매일 1회 | 월 4회 |
| 전화통화 | 처우급에 따라 | 소장허가 시 | 월 3회 |
| 교육/교화 프로그램 | 의무사항 | 신청에 따라 | 신청 없이도 가능 |
| 작업부과 | 신청사항 아님 | 신청에 따라 | 신청에 따라 |
| 시설 설비 계호 | S1~S4 | 일반경비시설(S3)준함 | 일반경비시설(S3)또는 중경비시설(S4) |

박형민 김대근, <사형확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집행법에 따른 사형확정자의 수형자 지위나 처우는 기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느낌은 오히려 미결처우에 가깝고, 소장 역량에 많이 좌우.

<명칭과 법적 지위>

- 개정된 형집행법을 통해서, '사형확정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마련하였으나, 수형자 처우(24개 조항), 미결수용자 처우(10개 조항)에 비해 3개 조항으로 적은 처우 문구로 소장에겐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사형확정자는 사형 집행이 금방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면, 이미 내려진 사형확정자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 역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듯
- 제안. 기결수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할 것이며, 처우급을 나누어 차등 대우를 해야 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교정교화 프로그램 통제, 접견 및 전화 횟수 차등)
- 지위와 처우가 정확해야 삶이 안정적이고, 교정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

<생활>

- ▶ 많은 사형확정자들이 기상시간보다 일찍 일어나 종교행위를 한다
- ▶ 나름의 스케줄에 따라 바쁘게 일과를 보냄(독서, 필사, 편지, 작업)
- ▶ 오후에 여유롭게(TV시청/ 성경/ 독서)
- ▶ 거실 환경 : 기관별로 상이(독거 혹은 혼거) 독거 및 혼거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차
- ▶ 겨울보다 여름이 지내기 어려움
- ▶ 운동 시간의 중요함(몸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멀찌감치라도 볼 수 있는 시간)
- ▶ 출역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과/징역형하는 이들과 상호작용
- ▶ 수용자들과 갈등 경험(빨간 명찰의 선입견/ 미결수와 관계 맺음의 어려움)
- ▶ '잡생각'없앨 취미생활을 원함
- ▶ 직업교육이나 인문학강좌, 예술강좌를 참여할 수 없다
- ▶ 출역: 상대적 자유로운 시간, 생산적 활동,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

<생활>

- ▶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결수보다 오랜 수용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라는 이유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이들이 교정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사형확정자' 라는 지위가 생기면서 일부 교정시설에 한해 출역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한 일이나, 말 그대로 출역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
- ▶ 개인적 미술활동정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단체 교육인 인성교육, 직업교육등에서는 배제
- ▶ 개인적인 식물키우기마저 허용이 안됨
- ▶ '교정'기관이 '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30여년 시간을 교정기관에서 지냈는데, 적극적 인성교육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이들을 교정 교화 시키려고 하였는가. 그리고는 30여년전의 사건으로 현재 이 순간의 이들을 사형시킨다면 교정기관은 책임이 없는가.

<생활>

- A: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보임/ 신문과 TV를 통해 사회 변화를 꼼꼼히 보고, 해외체험을 하면서 일부교정위원에게 마치 다녀온 듯, 이전에 체험한 사실인양 이야기함
- B: 깊은 영성, 최근에는 종교행위에 대한 압박마저도 자유로우려 노력함, 최근 미술을 시작하는 듯.
- C: 인간관계(다른 사형확정자간, 종교위원들, 수용자들)를 통해서 활력을 얻음
- D: 꼼꼼하게 신문을 읽어 교양과 상식을 얻음, 뛰어난 집중력과 몰입이 특징. 식물키우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낌. 종교위원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성장했었으나 최근의 사형제 집행 분위기에 심리적 회피의 경향이 나타나 보임
- E: 소심하고 내성적 성격, 의미 깊은 성서 묵상과 고찰.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
- F: 특허를 내는 일(?)을 공부하고 개발.
- 사형확정자들 역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하고, 또한 외부인원과의 연결 역시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 특성>

- 교정기관 밖의 평범한 생활에서 점점 잊혀져 간다는 사실. 마지막 기억은 사건 당시와 이로운 재판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
- 세상과 단절된다는 두려움, 남아있는 사람들 기억에서 자신이 사라져간다는 두려움
-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기인(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제도가 남아 있음)
- 매일 반복되는 수용생활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답함, 이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두렵게 만듦
-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이 꽤 많음, 트라우마 형태,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함
- 여전히 가족, 친지의 걱정

<심리적 특성>

- ▶ 종교는 생활의 가장 큰 부분, 종교적 위로는 사형의 두려움을 견뎌내는 데 도움, '희망없음'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더함.
- ▶ 교정위원은 사형확정자들이 만나는 외부사람의 대부분, 외부접촉은 종교를 통해 이루어짐
- ▶ 여유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 경전읽기, 필사 등 종교적 행위
- ▶ 자신 또는 자신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 표시
- ▶ 기억을 되살리게 함으로 교정기관 내의 생활이 힘들어짐
- ▶ 가족까지 괴롭힘
- ▶ 부적절한 취재(면회 가장 몰래 촬영,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함정취재, 왜곡보도) 상상으로 단행본을 쓴 교수에 대해 분노

<심리적 특성>

- ▶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형확정자
- ▶ 반면 현재의 상황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두렵다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음
- ▶ 집행 여부나 수형생활의 고통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형확정자
- ▶ 사형제 찬반 여부 역시 개인차
- ▶ 대체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
- ▶ 사건 당시 사형에 대한 두려움 혹은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 없었음.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은 생각도 없었음.

<심리적 특성>

- A: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가스라이팅이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향이 보임. 가족과 연락을 드물게 함
- B: 깊은 반성으로 영적인 깊이가 상당함. 종교위원들과의 연결에서 안정감을 가짐. 코로나때 많이 힘들어 했음. 누나들과 연락을 하며, 도움을 받음
- C: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편이며, 아들 걱정을 많이 함. 종교위원들과의 연결에서 안정감을 가짐. 코로나때 많이 힘들어 함.
- D: 가족과 드물게 연락을 가지고 있으며, 집중과 물입이 상당함. 드러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의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느껴짐
- E: 코로나때 극도로 힘들어 함. 내성적 성격이어서 더욱 그러함. 가족과 거의 연결이 없음.
- 코로나시기에는 모두들 힘들어한 고립의 시간이었는데, 독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던(운동시간 역시 간헐적이고 불확실) 사형확정자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종교위원간의 만남은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여러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함(종교위원 사정, 기관의 사정, 담당자의 사정)
-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필요함

<교정 공무원의 인식>

- 사형확정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 교정공무원들이 보기에, 사형확정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형확정자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혼거의 경우, 예전에는 비용지급을 면제하는 압목적 관행이 있었으나 요새는 없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독거의 경우도, 사동도우미나 다른 독방 수용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함.
- 언론 보도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됨. 강력사건 보도나 사형확정자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용분위기가 나빠짐. 언론보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감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형확정자들에게 더 크다고 교정공무원들은 인식

<교정 공무원의 인식>

-사형확정자 처우에 교정직원들의 어려움

- 교정교화의 어려움: 방향성 있는 교정교화 처우를 실시하기 어려움.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스스로 부담스러움
-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다른 수용자들이 사형확정자들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직원들에게 큰 부담
-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간혹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형확정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
- 자살우려: 중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기 수용기에 더 많음. 혼거수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함.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형확정자들에게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교정 공무원의 인식>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의 의미

-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사형확정자들에게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교화 대상이며, 교정기관에서의 수용생활 자체도 사회생활이고 삶을 의미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러한 것이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다
- 일부 직원은 수용생활 중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의미있다고 생각
- 허용된 교정교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 출역(경제적 의미가 가장 크지만, 또한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수용관리 측면에도 긍정적

<교정 공무원의 인식>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 보다 세분화된 분류와 이에 따른 처우의 다양화 필요
- 일반수에 적용되는 급수 적용하여 처우의 다양화 시도
-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종교활동 확대나 인문학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직원들
- 교정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사형확정자들에 대해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음(노령화, 병원, 초상, 사회복귀 가능성있는 충분한 사람이 있음, 범죄에 대해 우발적인 경우도 있음)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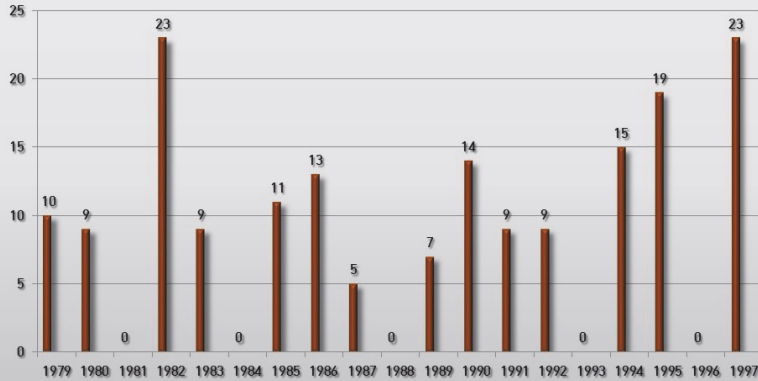
- 1.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 제거: 미결이지만, 사실상 기결이고, 어느 기결수보다 오래 수용되어야 하는 모호성은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기결수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2. 사형확정자 처우 변화 필요성
- 수용등급을 부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모범으로 유지할 실제적 동인도 없음. 동료수용자와의 생활 및 교정공무원과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적용 및 출역 등 직업 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법을 집행할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형집행법 4조)



1. 개요

- 우리나라는 1949년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형법」을 비롯한 17개의 법률에서 84개의 항목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상 여적죄(제93조),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제5조)가 있음
- 사형을 제도로서는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2000년대 초 이후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쇄살인범, 대량살인범, 피살자가 3명 이상이거나 아동일 경우, 살해수법의 잔혹성, 성폭력, 문지마 살인 등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으로, 여성 사형수는 1997년까지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감형되었으며, 그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없음

2. 대한민국 사형집행건수(1979~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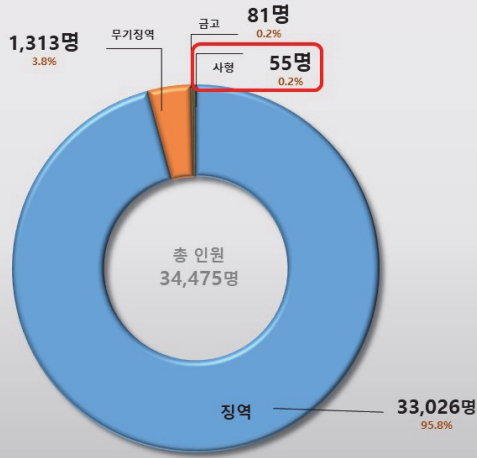
출처: 한용순(200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재구성

3. 사형수 현황(2013~2022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징역 | 30,738 (95.6%) | 32,006 (95.7%) | 33,637 (95.8%) | 34,991 (95.9%) | 34,679 (95.9%) | 33,790 (95.8%) | 33,232 (95.8%) | 33,287 (95.8%) | 32,643 (95.8%) | 33,026 (95.8%) |
| 금고 | 53 (0.2%) | 60 (0.2%) | 67 (0.2%) | 86 (0.2%) | 73 (0.2%) | 81 (0.2%) | 66 (0.2%) | 86 (0.2%) | 67 (0.2%) | 81 (0.2%) |
| 무기 | 1,288 (4.0%) | 1,320 (3.9%) | 1,337 (3.8%) | 1,345 (3.7%) | 1,358 (3.8%) | 1,343 (3.8%) | 1,343 (3.9%) | 1,320 (3.8%) | 1,322 (3.9%) | 1,313 (3.8%) |
| 사형 | 58 (0.2%) | 58 (0.2%) | 57 (0.2%) | 57 (0.2%) | 57 (0.2%) | 57 (0.2%) | 56 (0.2%) | 56 (0.2%) | 55 (0.2%) | 55 (0.2%) |

출처: 2023교정통계연보,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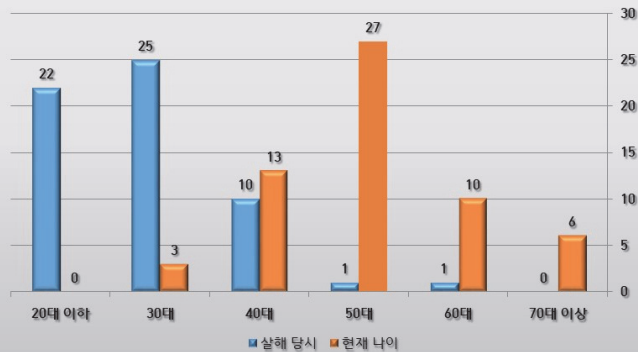
3. 사형수 현황(2022년)



출처: 2023교정통계연보

4. 사형수 범행 당시, 현재 나이

· 2023년 6월 기준, 사형수 59명 관련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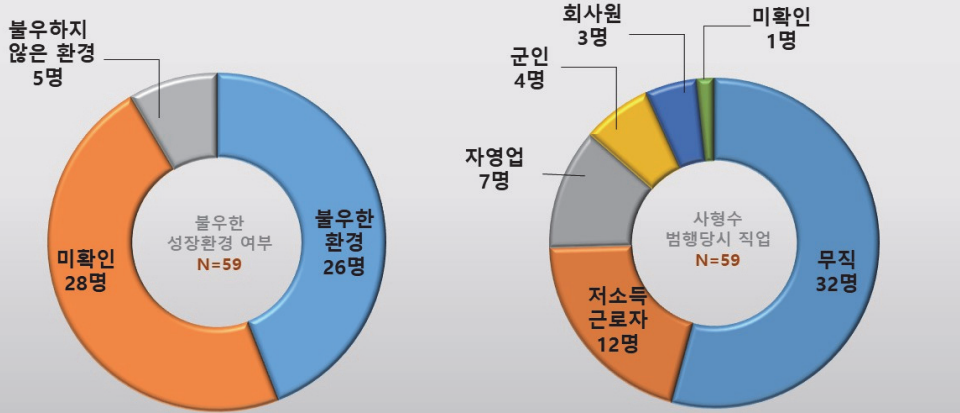


최연소 31세, 최고령 85세

출처: 한국일보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5. 성장환경 여부 및 범행당시 직업

• 2023년 6월 기준, 사형수 59명 관련 통계 자료



출처: 한국일보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6. 피살자 연령과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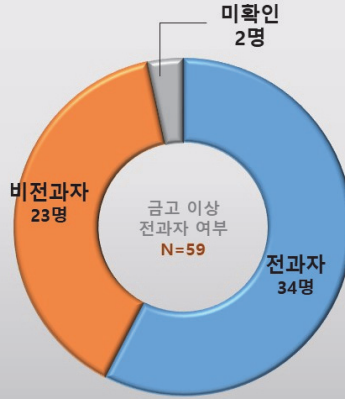
• 2023년 6월 기준, 사형수 59명 관련 통계 자료

| 성별 | 연령 | 명수 |
|----|--------|------|
| 남성 | 0~9살 | 7 |
| | 10~19살 | 10 |
| 여성 | 0~9살 | 5 |
| | 10~19살 | 18 |
| 남성 | 20~29살 | 30 |
| | 30~39살 | 6 |
| 여성 | 20~29살 | 40 |
| | 30~39살 | 14 |
| 남성 | 40~49살 | 9 |
| | 50~59살 | 10 |
| 여성 | 40~49살 | 22 |
| | 50~59살 | 16 |
| 남성 | 60~69살 | 2 |
| | 70대 이상 | 4 |
| 여성 | 60~69살 | 8 |
| | 70대 이상 | 8 |
| 합계 | 합계 | 78명 |
| 합계 | 합계 | 131명 |

출처: 한국일보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7. 금고 이상 전과자 여부

• 2023년 6월 기준, 사형수 59명 관련 통계 자료



출처: 한국일보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8. 사형수의 생활실태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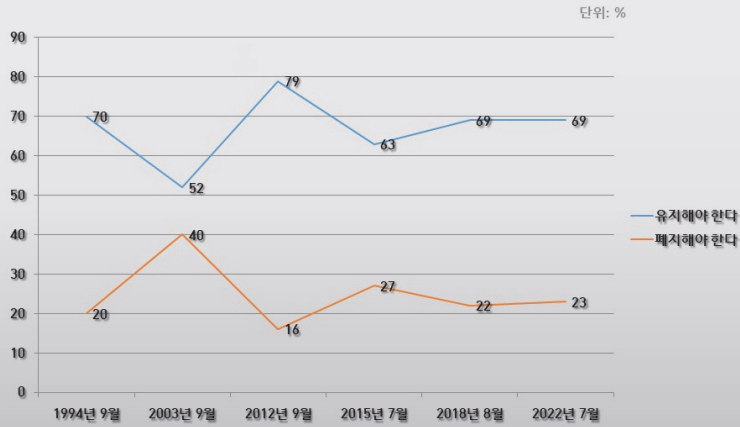
• 일반 기결수 및 미결수와의 차이

| | 기결수 | 미결수 | 사형수 |
|--------------|--------------------------|----------------|-----------------------------|
| 참관 | 할 수 있음 | 할 수 없음 | 할 수 없음 |
| 접견횟수 | 처우급에 따라 달리 적용 (4회~매일) | 매일 1회 | 월 4회 |
| 전화통화 | | 소장허가 시 | 월 3회 |
|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 | 의무사항 | 신청에 따라 | 신청 없이도 가능 |
| 작업부과 | 신청사항 아님 | 신청에 따라 | 신청에 따라 |
| 시설의 설비 및 계호 | S1~S4 | 일반경비시설(S3)에 준함 | 일반경비시설(S3) 또는 중경비시설(S4)에 준함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형민, 김대근, 2019 연구총서 201912:1-134 p.34

9. 사형제 관련 기타 통계

· 사형제 존폐 여론(1994-2022)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04호 WWW.GALLUP.CO.KR

9. 사형제 관련 기타 통계

· 사형제 관련 중요 결정

- **1949년 7월 14일** : 첫번째 사형 집행(살인죄)
- **1969년 9월** : 대법원, 사형제 합헌 판결
- **1987년 9월** : 대법원, 사형제 합헌 판결
- **1996년 11월** :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재판관 7대2)
- **1997년 12월 30일** : 23명 사형 집행
- **2010년 2월** :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재판관 5대4)

출처: 한국일보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에 관한 네러티브 탐구

김 영 식

소망교도소 소장(법학박사)

장 인 기

소망교도소 (상담학박사)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영 식(소망교도소 소장, 법학박사)

장 인 기(소망교도소, 상담학박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가 수용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landinin & Connelly(2000)의 질적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활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경험 자료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약 5개월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가 제안한 연구절차를 활용하되, 특히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서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성장배경>, <수용생활>, <수용생활 경험의 의미>의 세 단계로 재구성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의 의미는 <삶의 벼랑 끝>, <남떠러지에서의 날개짓>,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이었다. 이 연구 결과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형자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개입과 도움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교도소, 수형자, 수용생활, 내러티브 탐구

I. 서론

수형자들은 교도소라는 또 하나의 사회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육(교화)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종교생활, 작업, 직업훈련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은 수용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으며 규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자신에게 선고된 기간 동안 수용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13년간 교도관으로서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은 연구자에게 삶의 맥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의미로 변화해 왔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공간은 '내 삶에서 집보다 더 가까운 공간'이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을 집에 두고 가야하는 '죄수들의 유배지'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또한 근무를 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수형자의 모습-처음 이송이 되었을 때 보이는 다양한 모습과 교도소에 점점 적응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수형자들, 그 변화에 반응하는 주변 관계자들, 가족과 접견을 하거나 통화를 하는 날이면 수형자의 표정들은 달라지면서 의미가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드러내었다.

교도소는 수형자들에게 장소는 같지만, 개개인 삶의 시간과 맥락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나타내며 의미를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수형자는 외부와 차단된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로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이어졌다.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을 교화시켜 재범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범죄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교도소의 역할은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의 차원, 더 넓게는 사회병리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장인기, 2023). 국내에서 재복역률이란 수형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하는데,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12년 24.8%에서 2015년 출소자의 26.6%로 증가한 이후 2018년까지 24%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교정통계연보, 2023). 이처럼 출소자 4명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도소에서 교정이란 사전적으로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

며 법률적으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수형자나 보호소년 등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고, 심리적으로는 인간의 성격을 교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이현림 외, 2017). 즉, 교도소에서 교정은 범죄자를 수용한 상태에서 수형자들을 교화·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는 수형자를 수용한 상태에서 교육교화·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전병창, 2009)이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수형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구속되면 다른 어느 옥구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출소에 대한 욕구이다(하춘자, 2006). 수형자들은 일상에서 보여주던 모습들이 평소와 같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상실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수형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과 또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상대방을 수용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남들에게 무관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수줍음과 불안, 부적절감, 사회적 고립과 위축, 비주장적 행동, 불필요한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인다고 한다(이영애, 2018).

범죄자들과 비범죄자들을 가장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요소나 환경적 요소 또는 성격적 요소들이 아니라, 대체로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하였다(박지선, 2012). 범죄자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런 감정에 빠져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들에서 인지적 오류와 왜곡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인지적 사고의 왜곡이 범죄의 근원이 된다(장인기, 2023).

수형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통찰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며 미성숙한 심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이정상, 김현아, 2011). 또한 수형자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대부분 우울과 불안, 정신병적 성향이 높고 범죄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덜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범과 성범죄자의 경우는 특히 타인을 기만하려는 경향이 높고, 약물중독자들은 신경증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수감된 수형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범죄행동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홍성렬, 2002).

처음 수감된 수형자는 구금 초기에 미경험세계에 대한 호기심, 마음의 준비, 또는 정보수집 정도에 따른 공포반응을 보이나, 재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교도소를 경험

하여 보았으므로 호기심이나 공포심을 크게 나타내지 않고 구금을 고통스럽게 지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재범 수형자는 재판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안정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이영애, 2018). 그러나 장기 수형자는 공포와 불안을 수반한 신경증적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수형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과밀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며 전체 수용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수형자가 나타내는 구금에 대한 공포반응은 도피형, 공격형, 순응형 3가지로 구분되며 구금 초기에 도피형이나 공격형 수형자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교도소에서의 생활에 대한 저항을 단념하고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켜 순응형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공정식, 정선희, 2010). 수형자들은 교도소 적응에 따른 구금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적 안정성과 공감성, 자기존중감이 저하되고 불안수준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더불어 구금이 장기화되면, 수형자들은 퇴행현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교도관의 지시나 교도소의 규칙에 순응하면서 무감각적인 특성을 보인다.

수형자들에게 수용 환경의 영향 또한 크다고 하였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불능의 느낌을 갖게 하고, 하루일과나 그 밖의 개인적인 계획 등을 의지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며,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 경우 수형자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과밀수용은 수형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자유공간의 축소를 가져와 이질적인 동료수형자들 간의 잦은 접촉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교도관과 수형자간의 긴장감도 고조시켜 폭행·폭동 등의 교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계천,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교도소라는 또 하나의 사회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생생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범죄집단이라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남성수형자를 대상으로 성장배경은 어떠한지, 수용생활에 대한 경험이 무엇인지, 이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였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량화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질적연구 방법론의 한 방식인 내러티브 탐구(Cladinin & Connelly, 2000)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 수형자의 성장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대한 경험은 무엇인가?

셋째, 수형자에게 수용생활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수형자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2)에서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2002)는 수형자들이 인지적으로 나타내는 보편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첫째, 비주체적 사고를 들 수 있다. 수용자들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없고 단지 타인에 의해서 그 상황이 결정된다.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 수형자는 가족의 경제력이나 교육 등 외부문제 및 수용생활과 관련된 이송이나 전방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익숙하게 되어 결국 의존적이고 비주체적인 사람이 된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특성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주변 환경과 흑백논리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현상이다. 수형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타인의 충고나 지적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갖지 못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과잉일반화를 들 수 있다.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하나만으로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넷째, 부정적인 사건에의 선택적 주의이다.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몰두하게 되어 전체 속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부분들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다섯째, 긍정적

사실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관계가 없거나 긍정적 경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섯째, 쉽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다. 결론을 내릴 때에는 부정적인 해석일 경우가 많으며, 부정적인 해석을 지지해 줄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 경향을 갖는다. 일곱째, 축소/확대경향이다. 축소경향은 부정적 결과나 똑같은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났을 때는 이를 용서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확대경향은 부정적인 결과나 자신의 실수는 확대시켜 받아들인다. 자신의 성공은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확대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여덟째, 감정적 추리이다. 자신의 정서적 경험이나 감정 상태에 기초하여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이 현실과 같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홉째, '~해야만 한다' 식의 사고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돼' 혹은 '이것은 해야만 돼'라는 말로 스스로 규정짓는 당위적 사고를 말한다. 열째, 낙인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좌절하고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2. 수용생활

수용생활이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들이 규정에 따라 함께 모여 의식주 생활을 하고, 교육(교화), 심리치료, 종교생활, 작업, 직업훈련 등 각종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며, 또한 수용생활은 개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인 자유가 구속되어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교도관이 수형자들을 위해 각종 상담과 처우를 담당하며, 항상 계호업무를 수행한다(윤민호, 2021).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08시부터 저녁 17시까지 주간 시간표에 따라 거실 및 작업장, 교육장에서 생활하고, 17시부터 다음 날 오전 08시까지 수용동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거실 크기에 따라 독거 생활을 하거나 여러 명이 혼거 생활을 한다. 수용동 거실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며 TV 시청과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서 개인 정비의 시간을 가진다. 교도소에서는 수용동별로 일반거실, 자치거실, 징벌거실, 의료(치료)거실, 종교거실, 교육거실, 작업거실, 직업훈련거실 등 수용동 거실에서 생활할 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수

용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형자들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동생활로 인해 민감해지고 위축되어 있어 사소한 일에도 일상적인 수용생활을 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후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예기치 못한 가족들의 사망, 질병, 이혼, 개별처우 불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심적 불안상태에서 타인과 다툼을 하는 등 규칙을 위반하여 조사수용, 징벌에 처하기도 하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며 일상적인 수용생활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윤민호, 2021).

3. 교육(교화)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2022)에서 수형자는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육과 심리치료, 종교활동,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 원인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무부령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독교 재단인 (재)아가페에서 설립한 S교도소는 201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 최근 수형자 교육프로그램을 IPIR¹⁾(변화와 회복을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램)에서 ABCNT²⁾(회복과 거듭남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1단계 신입자교육(3개월), 2단계 인문학/음악치유/미술치유(6개월), 전인회복(6개월), 작업 및 직업훈련, 3단계 출소전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소망교도소, 2023).

수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은 화요문화행사와 가족프로그램, 멘토링, 귀휴제도가 대표적이다. S교도소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케스트라 연주, 가수들의 공연, 초청강연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수형자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프로그램으로는 소망(가족)캠프, 아버지(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가족만남의 날 행사가 있다. 멘토링은 수형자들과 외부의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결을 통

1) IPIR은 Individualized Programs for Innerchange and Restoration의 약자임

2) ABCNT는 A: Agape School, B: Born-Again School, C: Community School, N: Nouthetic Counseling, T: Transition의 약자임

해 수형자들의 내적성장과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멘토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귀휴제도는 6개월 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수형자가 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수형자 심리치료는 성폭력이나 알코올, 도박 등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해나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 S교도소에서는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형자가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부의 전문상담사 혹은 내부의 일대일 전담상담사와의 매칭을 통해 개인 심리상담을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S교도소는 T100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우려가 많은 수형자 100명을 선정하고 케이스 매니저라고 지칭하는 직원들을 매칭시켜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인간은 삶과 경험, 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며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Dewey, 1938). 이러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철학적 관점을 Clandinin & Connelly(2000)는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경험은 내러티브적으로 일어나며 내러티브는 누군가의 경험을 이해하면서 표현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핵심은 바로 '삼차원적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on inquiry space)'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간/연속성(temporality), 장소/상황(place),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각 축으로 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배치하고 탐구하는 공간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즉 연구자는 내러티브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삼차원적 탐구 공간'에서 참여자가 마주한 경험을 시간적·공간적인 맥락 안에서 그들의 경험을 입체적

으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개인적 상호작용 관계를 확인하면서 문화적인 영향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표현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생생한 경험과 의미를 탐색한다(강유진, 2017).

2.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Clandinin & Connelly, 2000)에 따라 교도소 수형자들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내러티브 탐구의 출발점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즉 연구자의 자서전을 구성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교도관으로 근무한 지 13년이 되었으며, 상담학박사의 자격을 갖추고 전담상담사로 수형자들의 심리상담을 돕고 있다. 교도소라는 곳이 연구자의 직장이면서 삶의 터전이기도 했기에 현장과 익숙해져 있었다. 현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 존재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경험의 개별성과 맥락성을 고민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원과정에서부터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질적연구 수업과 학회를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나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접해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그저 관리 대상으로만 보이던 수형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개별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현장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이 과정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현장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본격적 자료 수집은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3명의 참여자와 개인별로 세 번의 심층면담을 위한 만남을 가졌고, 만날 때 마다 90분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이외에 두 번의 가벼운 만남을 통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를 먹는 동안 나눈 대화나 느낌들도 자연스럽게 연구결과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바로 축어록으로 전사하였고,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메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거나 궁금하면 다음 만남에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3)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에는 연구자가 참여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들을 고려해야 하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세 번의 심층면담과 두 번의 가벼운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문서화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참여자들이 이야기할 때의 느낌들을 상기하며 해석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을 하였다.

4)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자는 참여자와 만나면서 심층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질문을 시작하면서 참여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반면 너무 한가지의 이슈만을 이야기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주제를 염두에 두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적연구로 논문을 작성한 박사졸업생 2인과의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갔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여러 방법으로 현장 텍스트를 배열하고 다른 연구들과 이론들을 참고하면서 참여자 이야기의 줄거리와 패턴을 찾으며 수용생활 경험이 갖는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수집된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의 첫 질문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혹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과정은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텍

스트를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연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가?’, ‘참여자에게 이 연구가 도움이 되는가?’, ‘교정분야에서 이 연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마주하였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에 포함된 내용을 파악하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코딩하며 재구성하였다.

5)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연구자는 발견된 주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옆두에 두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시 시간성, 관계성, 장소라는 삼차원적 공간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라는 연구자의 경험이 선입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된 이야기들을 참여자들에게 직접 보내어 읽어보게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며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텍스트 작성 단계에서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1인과 질적연구 분야 전문가 1인에게 연구자의 해석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연구 내용 해석에 대한 작성을 하였다.

〈표 1〉 내러티브 탐구 절차

| 구 분 | 절 차 | 내 용 |
|-----|------------|------------------------------|
| 1단계 | 현장에 들어가기 | 연구가설 및 문제, 질문이 연구에 적절한지 판단 |
| 2단계 |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 연구의 자료수집 단계 |
| 3단계 | 현장텍스트 작성하기 |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문서화하는 작업 |
| 4단계 | 연구텍스트 구성하기 | 작성된 텍스트에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과정 |
| 5단계 |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 텍스트에 포함된 내용을 파악하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 |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내러티브 탐구는 단일한 개인, 혹은 소수 개인들의 상세한 이야기 혹은 인생 경험들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한 명 이상의 개인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다(Creswell, 2013).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2년 이상 경험한 수형자 3명이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적극적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하였다(Maxwell, 2009).

참여자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근무하는 S교도소에 교육담당자를 통해 모집을 하였고, 담당자가 추천한 5명의 수형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내러티브 탐구 특성상 장시간 연구 참여와 수용생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본인의 거절로 인한 1명을 제외하였다. 이후 첫 만남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1명을 제외하여 최종 3명의 수형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Clandinin & Connelly(2000)가 강조하는 것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이정호, 2017), 이는 연구 결과와 바로 직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본격적인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연구 목적, 참여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참여자 3명과 개인별로 세 차례 면대면 심층면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료분석과 글쓰기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았으며, 심층면담 후 두 차례의 가벼운 만남을 통해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자와 참여자로서의 기능적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참여자와 대화의 깊이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정보

| 대상 | 연령 | 학력 | 직명 | 종교 | 가족 |
|------|-----|------|-------|-----|---------|
| 참여자1 | 30대 | 고졸 | 보이스피싱 | 기독교 | 모, 누나 |
| 참여자2 | 20대 | 중졸 | 특수강도 | 불교 | 모, 누나 |
| 참여자3 | 40대 | 고교중퇴 | 사기 | 무교 | 아내, 자녀1 |

4.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한 도구가 연구자이다. 이에 연구자는 개인적인 신념, 가치, 선입관 등에 대해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조건이다. 특히 연구자의 경력이나 배경은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성찰과 이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자필서명으로 동의한 후 개개 인과의 심층면담을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가볍게 티타임을 가지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

교도소는 특수성이 있고 수형자들의 수용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 주제로 볼 때 선행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진정성과 신뢰성이 동반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배경과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살아온 삶, 가족, 범죄에 대한 과정 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 개개인을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수형자라는 사전 조건을 가능한 배제하며 연구를 위한 면담이 아닌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접견이나, 운동, 식사 등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이며, 면담을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 협의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질적연구’ 및 ‘연구방법론’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하였고, 질적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박사논문 작성시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았으며, 다수의 국내외 질적연구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연구에 대한 준비를 높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종료한 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례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도 참여자의 번호로 제시함으로 민감한 정보와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IV. 수형자의 이야기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제시하여 연구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이은영, 2015). 참여자에게 전달받은 일기와 메모에서 발췌하고 참여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인물, 장소, 사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1. 수형자의 성장배경에 관한 이야기

1) 참여자1의 이야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릴 시절은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만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의 폭력은 나로 하여금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가게 하였다. 내가 기억하기로 아버지의 폭력은 먼저 어머니께 손을 대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집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어머니를 때리셨다. 물건이 없으면 손과 발로 때리셨다. 어머니께서 맞는 것을 볼 때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다. 어머니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이 실명될 뻔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누나와 나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

어머니가 나가서 폭력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누나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누나도 맞는 것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가출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누나는 어머니께로 도망을 간 것이다. 아버지와 혼자 남은 나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였다. 아버지께서 술만 마시면 여전히 나를 학대하였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내가 초등학교 생일 때 나를 키우기가 힘들다며 밖에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 곳이 누나가 다니는 중학교 앞이었는데, 나는 누나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누나를 발견하여 따라가서 살게 되었다. 그 날부터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 때 부터 어머니와 누나랑 같이 살았다. 어머니는 말이 거치셨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께서 나를 버리고 집에서 나간 것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어머니께 점점 반항하게 되었다.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는 얘기를 할 때면 왜 나를 낳았냐고 항상 화를 내며 반항을 하였다.

나의 학교생활은 전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집에 돈이 없으니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교 교실에 있는 라디오를 고물상에 팔아서 선생님께 걸린 적이 있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학대만 아니었으면 집에만 있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학교에 다녀야 할 의미를 몰랐다고 할까. 사실 나는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학교를 간 것이 맞다.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의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서인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만 만나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진 애들이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배웠다. 학생 때에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셨는데, 친구들 얘기로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차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나도 불량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누나도 일진에 들어가 있으니 주변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신기하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였지만 나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해 방황을 하며 지냈고 매일 술만 마시며 지냈다.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겨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술을 먹고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사고를 쳐서

벌금을 낸 적도 있었다. 나는 삶이 지옥이며, 고통의 연속이었다.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도,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친구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고,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금새 헤어졌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술친구를 만나기도 하였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혼자 지내는 것이 편했다.

2) 참여자2의 이야기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였는데, 친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고 기억조차 없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그런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외가 쪽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살면서 그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같이 살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거 같다. 학교에서 봄에는 운동회를 하였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셔서 즐거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중학생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 어느 명절 날 친척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나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고아원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데리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나는 외가쪽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살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버린 자식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많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렵고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을 잘하지 못해서 ADHD였던거 같다. 책을 1분도 읽지를 못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날은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죽음을 겪고 나니 왠지 모르게 삶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나의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어머니께서 조카들하고 비교할 때 반항심이 생겨 더욱 벗어나는 생활을 하였다. 그 때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서 돈만 뺏어가는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에 연루가 되어 버렸다. 그 두 가지 일이 겹쳐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

나는 퇴학을 당한 후 경찰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 불안하였다. 경찰조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결국 소년원에서 한 달 정도 살게 되었다. 소년원에서 지낼 때에는 매일매일 무서웠다. 소년원을 나오고 20대초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니 공황증세라고 하였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약을 먹었다.

3) 참여자3의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일을 하러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간혹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잠만 잤던 모습만 기억한다. 살면서 아버지와 여행을 간 기억이 전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면 자랑스러웠겠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누나들은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한다.

학교는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였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학교를 가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았다. 사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남을 때려서 폭행문제까지 일어났었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정신을 못차리고 집단폭행사건을 다시 일으켜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

내가 군생활 중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 군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나서 부대 복귀를 하지 않으니 탈영이라고 잡으러 왔다. 그래서 영창을 가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 이후로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곧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잘해주셨다. 그래서 친아버지보다 새아버지께 더 정이 많이 갔다.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니 어머니께서 카드를 하나 주셨다. 근데 하루는 노래방에서 70~80만원을 쓰니 어머니께서 카드를 빼앗고 더 이상 주지 않았다. 나는 공부를 싫어했지만 손재주가 조금 있는 거 같아 기술을 배웠다. 일을 배웠지만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살았다. 아는 사람한테 여자를 소개 받아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반대가 심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

동거를 하면서 자녀가 1명 있었는데, 아내한테 맡기고 밖으로 술을 마시러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배운 기술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였다. 베트남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할 게 없어서 술을 자주 마셨다. 이 일도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도 계속 곁돌기만 하고 술집만 가서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2.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관한 이야기

1) 참여자1의 이야기

나는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돈이 필요하였다. 사회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몰랐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일을 구했는데, 무슨 배달일이었다. 보수도 꽤 괜찮아서 일을 시작하였다. 일을 하다가 곧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배달일을 하는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가보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내가 한 일이 보이 스피싱 전달책이었던 것이었다. 범죄자가 되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억울함 뿐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술만 마시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였다. 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해봤지만 죽지는 않았다. 약은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다양한 약을 구해주었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약을 구하지도 못했다.

결국 구속이 되어 00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구속이 되고 방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였다. 씻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사람들과 같이 하다보니 긴장되고 불안하였다. 이런 것이 진짜 징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관들은 수시로 통제를 하였고, 그들의 눈은 항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매일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었다.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예전에 잠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 정말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자살시도를 하였다. 다행인지 아닌지 죽지는

않았지만 교도관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S교도소로 이송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 이송을 오게 되었다. 이송을 오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 아시는 목사님이 접견을 오셨다. 그냥 한번 만나러 오시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였는데, 정기적으로 매번 찾아오시고 돈을 보내 주셨다.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시니 그 분한테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만약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목사님 같은 분처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사회에 있을 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술먹고 잠을 자느라 그나마 못갈 때도 많이 있었는데...교회 목사님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다.

교도소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을 같이 먹던 친구들은 연락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어머니와 누나가 접견을 와주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접견을 온다.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동안 내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비난만 가득하였다. 어머니께는 좋은 말을 한적도 없다. 교도소에서 가족행사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누나가 왔다. 가족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 행사에서 나를 만나러 와주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외롭고 쓸쓸하여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와 누나가 계시고 목사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S교도소에 오면 신입자교육을 하게 되는데, 인상이 남은 것 중의 하나가 아버지 학교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있는 나에게 아버지 학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없애는 것이 내가 가정을 이룰 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무엇인지 희미하나마 알 수가 있던 프로그램이었으며, 어렵지만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수용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조차 쉬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피할 수 있으면 계속 피한 적도 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고 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수용생활 중에 심리상담을 신청하였다. 교도소에서 심리상담이라니... 별 기대감 없이 신청한 상담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상담을 할 수가 있었고, 심리상담은 1주일에 1번씩 총 9회기를 진행하였다.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변 수형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나니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다.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성격이 민감해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취약하였다. 일주일에 1번이지만 상담에서 나의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났었는데 해소가 되었다.

이전에 있던 교도소에서는 거실에서 나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으며,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루를 살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공황장애 증세가 매일 나타났었다. 그래서 자살시도도 했었던 거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달랐다. 나는 S교도소에서 교육도 받고 있다. 미술 교육을 신청하였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2번 집회도 나가고 있다. 교도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공동체 모임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생활을 한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보이스포싱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강하게 생겼다. 살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도 말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시간에 죄송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사회에 나가면 꼭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싶다.

나는 출소하고 나면 사회에서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내게 꿈이 생긴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무슨 꿈이냐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돕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꿈이다.

2) 참여자2의 이야기

나는 20대에 도박을 하면서 그 세상에 빠져 살아갔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이었는데, 매일 도박을 하니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고, 특별히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돈을 벌지는 않으면서 도박을 하니 돈이 필요하였다. 처음엔 가족들 돈을 썼었는데, 도박 빚이란게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정말 도박에 미쳤었나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칼로 위협을 하여서 협박으로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 친구를 위협한 것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조사를 더 받게 되었다. 힘들고 괴로웠다.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도박을 6년 정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6년 동안 정말 도박만 하고 살았나 보다.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살해미수라는 죄명이 같이 들어갔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하루는 밤에서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의 반이 마비가 되었다. 병원에 갔지만 아무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에 느낀 공황장애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다. 도움을 청할 곳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S교도소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져서 다행이었다.

나는 S교도소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 것이 교도관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그전 교도소에서는 번호로만 불러져서 내가 그냥 물건이나 범죄자로 평생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졌었다. 근데 내 이름을 불러주니 사람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 S교도소에 와서도 무엇이든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나마 식사를 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 식당에서 할 수가 있었고,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아직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긴 하다.

모든게 힘든 상황이지만 종교활동으로 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 외부봉사자 중에 출소자 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 출소자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의 편견을 많이 의식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책을 읽는데 40분 정도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 아가페영성스쿨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교육을 들었다. 강의하러 오는 외부강사나 봉사자를 통해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았다. 어느 봉사자는 새벽부터 기나긴 시간 차를 타고 교도소에 봉사를 하러 오는 것이었다. 그냥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는 생각만 하였다. 점점 그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그냥 청년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느껴졌다. 두 번째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우리 가족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을 교도소에서 받을 줄은 몰랐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올 때는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생각만 가득하였다. 봉사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되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내가 친구를 위협하고 돈을 뺏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나의 잘못을 몰랐던 것이다. 친구한테 미안하였다.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편지도 보냈다. 가족에게

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나인데 그것을 몰랐다. 그냥 나를 버렸다는 생각만 했는데, 내가 삐뚤게 살아서 가족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다. 반성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직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교도소에서 주변 수형자들에게 내 얘기를 하게 되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해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으니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다. 1주일에 1번씩 이지만 총 10회기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첫 회기에 상담목표를 정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의 불안함을 없애고 싶다고 얘기하고,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다. 이전에는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였지만 내 안에 집중하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다. 조금씩 내 안을 들여다보니 공황장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항상 궁금한 어머니하고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피하려고만 하였는데,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 때는 왜 그러셨는지 말이다. 근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거 같았다. 그 당시 어머니도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다.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말이다.

교도소에 와서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어머니하고 누나 정도인데 말이다. 가족프로그램인 소망캠프를 하면서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영치금을 넣어주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니, 나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다고 누나한테 들었다.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아저씨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 있다 다시 이혼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소에 있으니 생각이 많아진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아직은 서먹할 때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그러진 듯 하다. 지금은 나의 모습 이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출소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니 출소하면 대학교 입학에 대해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나는 대학교에서 심리상담 공부를 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또한, 어릴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커서 그런지 노인들에게 봉사

하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다.

3) 참여자3의 이야기

나는 개인적으로 렌트카를 운영하는 형을 알고 있었다. 그 형은 렌트카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이 투자금에 대한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다. 나도 렌트카를 운영하는 형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손해를 보았는데, 고소까지 당하니 황당하였다.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줘서 결국 구속이 되었다.

어릴 때 소년원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도소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도 거실에서 먹는 거며 여러 명과 같이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매일 기싸움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거실에서는 공동생활을 하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알게 모르게 생겼다. 나는 대인관계가 점점 힘들어 졌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자리잡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거칠게 하였고, 거실 사람들하고 작은 거 하나로 시비를 걸었다.

삶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나는 S교도소로 신청을 해서 이송을 갈 수가 있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좋았던 것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전 교도소는 거실에서 식사를 할 때 반찬이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고깃국이 나와도 고기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불만이 많이 생겼었다. 이전 교도소처럼 S교도소에서 이송와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원예작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막내로 들어가니 온갖 잡일을 시키는 것이다. 부조리라고 생각을 해서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 동료수형자들이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원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사회에 있을 때 술을 너무 먹어서 그런지 가끔 깜빡깜빡 할 때가 있다. 교도소에 있으니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다. 최근에는 그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골반이 아팠다. 진료를 받아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골반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어서 치료거실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전에 교도소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으며, 피병이라고 외부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었다. 치료거실은 평균연령이 거의 50대 후반이다. 40대인 내가 막내여서 이런 저런 잡일을 해야 되는데, 원예

작업장 보다는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교육이 싫었다. 여기에도 교육이 있어서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을 어쩔수 없이 가게 되었다. 근데 교육공과에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회에 있을 때에는 종교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종교교육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졌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직원이나 외부강사, 동료수형자들에게 물어보았다.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종교활동 집회도 나가게 되고 가족에게도 소개를 하였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잘못된 것, 지금까지 못되게 살아온 것, 피해자에 대한 반성 등등 내가 살아온 잘못된 날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봉사하는 분 중에 경기도 00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 그 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한 생각을 하였다. 출소하면 그 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S교도소에서는 개인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심리상담을 신청해서 1주일에 1번씩 총 10회기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교도소 내에서 관계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싶고 갈등이 생겨 폭력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상담을 통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나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교도소에 있어보니 아내와 아들이 많이 보고 싶었다. 자녀가 어리면 가족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가족접견을 할 수가 있었다. 아내가 일을 해서 가족접견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가족접견을 할 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가족을 보니 좋았고, 잠시이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쌍둥이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도록 하였다. 내가 여기에 구속되어 있으니 경제적으로 집안이 더 힘들 것이다. 어머니께 한번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아내가 아들을 유치원과 학원에 맡기고 나서 낮에는 간호조무사일을,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빨리 출소를 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3. 다시 이야기하기: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에 관한 의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용생활에 관한 경험이 갖는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배경과 수용생활에 관한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였다면, 연구자는 이해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였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단순히 징역을 사는 것이 아닌, 교도소가 교정의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경험하는 수용생활은 ‘삶의 벼랑 끝’이지만 ‘남떠러지에서의 날개짓’이자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고,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하며, ‘출소후 선(善)한 삶의 추구’로 분석되었다.

1) 삶의 벼랑 끝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첫 번째 의미는 ‘삶의 벼랑 끝’이다. 수형자들의 성장배경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온전하게 자라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 어린시절부터 자라온 성장배경이 나쁘다고 전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폭력, 이혼, 방임 등은 수형자들의 인격형성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량청소년인 일진들과 어울리는 등 비행청소년으로 빠졌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서의 일탈이 계속 진행되어 ‘삶의 벼랑 끝’으로 반복적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범죄자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참여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재판, 교도소에 수용되기 까지 매순간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었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교도관들의 감시와 통제되어 있는 일상, 마음대로 먹고 입을 수가 없고 제대로 씻을 수가 없다. 수 명의 사람들과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도 없이 옆사람의 악취로 고생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데,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뜨거운 물 한 병이 귀했다.

2) 낭떠러지에서의 날개짓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두 번째 의미는 ‘낭떠러지에서의 날개짓’이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수형자들의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자 장소이며 절망의 순간이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소 후 사회에 다시 나가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S교도소는 기독교재단인 (재)아가페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이며, ‘영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선(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S교도소로 이송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 ‘낭떠러지에서의 날개짓’은 출소 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수용생활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을 의미했다.

참여자들은 수용생활이 끝나면 다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낭떠러지에서의 날개짓’은 수형자들을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고 시간만 보내는 징역이 아닌 출소할 때 범죄의 길로 다시 빠지지 않고 선(善)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 수용되기까지 가족이나 학교 등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범죄자라는 편견으로 살아가야 하는 출소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의 이 결단은 쉽지 않은 선택이며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교화)와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이 사회에서 지낼 때에는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의 말 조차 듣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교육 등을 받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였다. 참여자들은 교육(교화)와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시작을 다시 다짐할 수 있었다.

3)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세 번째 의미는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이 주는 고통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참여자들은 미성숙한 어린 시절에 멈

취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참여자들은 한편으로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교도소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교화프로그램 중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 교도소에서 소망캠프, 가족접견,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아버지(어머니)학교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버리지만, 그나마 가족은 끝까지 남아있다. 이런 가족들과 화합을 위해 수용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은 다시 한번 가족과 화해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분노와 오해를 풀고 그 관계가 좋아질 때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도 해소하게 된다.

4)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네 번째 의미는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수형자를 교정교화시키는 것은 교도소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참여자들은 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종교활동을 통해 수용생활에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적이거나 종교적인 방법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참회하게 된다. 참회의 대상과 시간은 점차 확장이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하기 위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출소 후에도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으려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살면서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교도소라는 또하나의 사회에서 ‘미안하다’라는 용어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단어이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약하게 보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번 참여자들은 수용생활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종교활동을 통해 잘못을 하게 되면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배우며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하며, 참여자들의 범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출소 후 돈을 벌어 갚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5)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다섯 번째 의미는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이다. S교도소에서는 ‘영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수형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종교활동에 녹아들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돕고 있다. 참여자들은 영성을 깨닫게 되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죄로 인해 위축되는 삶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선(善)한 삶의 추구로 이어지는 목표가 되었다.

참여자1은 출소 후 사회에 어떤 모습이든 공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의 직업으로 아동과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출소 후 사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2는 20대로 젊은 세대이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대학에서 심리상담을 공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을 공부하길 원하며, 타인에게 특히, 노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참여자3은 교육이나 종교활동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 수용생활이전에는 가족을 소홀히 하며 살았지만, 출소 후에는 가족에게 먼저 봉사하는 가장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또한 출소 후 교회를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성장배경과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세 명의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약 5개월에 걸쳐 개인별로 각각 세 번의 면대면 심층면담과 두 번의 티타임, 메모장, 일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Cla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참여자들의 수용생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삶의 벼랑 끝>, <남떠러지에서의 날개짓>,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첫 번째 의미는 '삶의 벼랑 끝'이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진들과 어울리는 등 비행청소년으로 빠졌다. 참여자들은 가정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서의 일탈이 계속 진행되어 '삶의 벼랑 끝'으로 반복적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결국 범죄자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참여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재판, 교도소에 수용되기 까지 매순간 벼랑 끝에서 서있는 심정이었다.

둘째,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두 번째 의미는 '남떠러지에서의 날개짓'이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교화)와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에서 지낼 때에는 가족이나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교육 등을 받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였지만, 참여자들은 교육(교화)와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시작을 다시 다짐할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세 번째 의미는 '가족,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에게 교화프로그램 중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 교도소에서는 소망캠프와 가족접견,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아버지(어머니)학교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버리지만, 그나마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이 있다. 이런 가족들과 화해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다시 한번 가족에게 다가가려고 하며 좀 더 성장하려고 한다. 가족에 대한 분노와 오해를 풀고 그 관계가 좋아질 때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도 해소되고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네 번째 의미는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다.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정교화시키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이다. 참여자

들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종교활동을 통해 수용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종교적인 방법이나 영성적인 방법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참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참여자들의 교도소 수용생활 경험의 다섯 번째 의미는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이다. 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교육(교화)와 심리치료, 종교 활동을 통해 출소 후에는 더 선(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영성을 통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반성을 넘어서서 출소 후 사회에서 선(善)한 삶을 살기 위해 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2. 제언

연구자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참여자들은 사회적인 공분과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삶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사회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다. 연구자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 따뜻한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봄으로써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서 범죄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실천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질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연구자이자 교정기관 직원으로서 가지는 이중관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교도소 직원으로서 직무상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한 교도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교도소에 대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관까지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S교도소는 ‘영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실재와의 충만한 관계적 경험을 통해 타인과 서로 연결됨을 깨닫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초월한다(윤미, 2018). 또한 ‘영성’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개인이 초월적인 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큰 선(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장인기, 2023). ‘영성’ 프로그램은 더 큰 선(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수형자들이 출소 후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S교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성’ 프로그램이 다른 교도소 및 소년원, 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된다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였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으로 안전 기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지역마다 가족센터나 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수형자들 대부분도 사회에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에는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들과 이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형자들의 범 죄는 중독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다. 참여자1과 참여자3은 알코올중독이었으며, 참여자2는 도박중독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중독상담 및 교육이 중요하였다.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이 알코올 섭취나 도박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보였지만, 출소 이후에 다시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중독에 빠져있는 수형자들은 출소 이후 중독센터 등에 연결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종교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도 수형자들이 출소하면 또다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COSA 코리아(후원과 책임의 공동체)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출소자 뿐만 아니라 다른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출소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실제 출소 이후 그들의 삶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수형자들의 성장배경과 수용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이지만, 출소 이후 출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교도소의 수용생활이 재범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유진, 『국외입양 전 아동 가정위탁보호 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공정식·정선희, “현대교정학”, 『한국학술정보』, 2010.
-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2023.
- 교정현장 상담, 『법무부교정국 교화과』, 3-7, 21-27, 2002.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2015.
-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2.
- 소망교도소, “ABCNT 체제 개관”, 『소망교도소』, 2023.
- 윤민호, 『성폭력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이영애, “교도소 수형자의 교정상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연구』, 3(2), 47-71, 2018.
- 이은영, 『아동상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정상·김현아, “구치소 재소자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상담학연구』, 12(5), 1413-1431, 2011.
- 이정호, 『남자청소년의 고교시절 기숙사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현림·김말선·김성곤·박춘자·서혜석·이연담·이영호·이장규·하창순·한숙자, “교정상담”, 『학지사』, 2017.
- 장인기, 『교정기관 영상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전병창, 『교도소 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홍성렬,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 『교정 연구』, (19). 91-114, 200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 2022.12.27.)
- Cla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2015.
- Riessman, C. K.,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 Los Angeles, CA: Sage, 2008.

〈ABSTRACT〉

Narr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 of Inmates Life in Prison

Kim, Young-shik

(Somang Prison warden, Ph.D. in Law)

Chang, Inn-ki

(Somang Prison officer, Ph.D. in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inmates experience while living in prison, and what meaning the experience is formed.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individual experiences using the narrative inquiry procedur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Clandinin & Connelly (2000).

Three participants who could provide vivid and sufficient data on their experience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ver about five months.

This study utilized the research procedure proposed by Clandinin & Connelly, but in particular,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was conducted with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in mind. I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ory of inmates' life in prison was reconstructed into three stages: "Growth Background", "Inmate Life", and "Meaning of Inmate Life Experience". The meaning of the inmates' experience of life revealed through their stories were "The Cliffs of Life", "Wings on the Cliffs", "Family, Hate Again", "Time of Repentance, Reflection on Victims", and "Pursuit of a Good Life After Pris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lives of inmates living in prison in more detail and provide more 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assistance.

Key words: Prison, Inmate, inmates life, Narrative Inquiry

주제발표 3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신 연 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신 연 희(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출소자의 사회통합은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범죄통제정책 또한 형사사법과정을 거친 출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기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가 준법시민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출소자에게는 범죄와 무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로서는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된다. 출소자의 사회통합 성공여부는 교정 및 형사정책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 출소자의 네 명 중 한 명은 출소 후 3년 이내에 수형자로 재복역하고 있으며(법무연수원, 2023: 517), 수형자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교정시설 입소경력이 있다(교정본부, 2022: 69). 한편 검찰에 검거된 범죄자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는 재범자이다(법무연수원, 2022: 510).¹⁾ 공식통계에 나타난 이와 같이 높은 전과율은 형사사법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성공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심각성에

* 이 연구는 감추고 싶었던 과거이지만 자신들의 사례가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출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 온 삶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준 연구 참여자들의 용기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1) 전과자는 과거에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법무연수원, 2022: 504),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법무연수원, 2022: 519).

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준비 및 출소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법기관의 통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출소자들의 특성과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국가가 간여함에 따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재범에 관한 관련 연구들 역시 노출을 꺼리는 출소자들에 대한 접근상의 한계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재범을 초래하는 원인 즉 범죄행동에 대한 위기요인을 규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재범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성공한 출소자 사례나 이들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사회통합에 성공한 출소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구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복귀한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삶으로 새롭게 정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보호요인들, protective factors)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소자의 사회통합 가능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출소 후 사회정착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하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 긍정범죄학은 재범을 막거나 잠재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에 비중을 두고 범죄를 설명한다. 이에 입각할 때 범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험들 즉 보호요인들의 역할이 부각되는데,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이나 회복탄력성이론(resilience theory)은 범죄행동의 위기요인들을 주목하는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과는 달리 범죄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재범을 막는 요인들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긍정범죄학과 같은 입장에 있다(신연희, 2023: 213-217).²⁾

이 연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로서의 삶을 단절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보호요인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통합을 달

2)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출소자에게 적용할 때,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투표권 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강화시킴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 자본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소자의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Rose & Clear, 2002).

성한 출소자들에 대해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삶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부정적 및 긍정적 경험들과 독특한 특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어떻게 관련되고 영향을 주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과정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 생애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특정 행위의 결과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과정을 연속성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출소자들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이는 출소자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일에 해당하며, 출소자들이 변화된 삶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출소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러티브 탐구는 정형화되고 계획적으로 보고되는 양적 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자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삶의 경험들을 회고한 자기이야기(story-telling)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객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체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관한 성공사례가 비슷한 처지의 출소자들에게 확장되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범죄행동에 이르게 된 원인을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출소 후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 보호요인을 발굴하는 것 까지를 포괄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이 출소자의 사회통합에 있는 만큼 보호요인에 관한 주제에 비중을 두었다.

II. 이론적 검토

1. 출소자 재범과 보호요인

교정시설 출소자의 사회통합 성공률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형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범역률은 25% 내외의 수준이고(법무연수원, 2023: 517), 수형자의 40% 정도가 교정시설 입소경력을 가지고 있다(교정본부, 2022: 69).

교도소 출소 후 사회로의 재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출소자 재범문제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조윤오, 2023; 권수진 외, 2020; 강호성, 2018; 연성진 외, 2012; 이원복 외, 2011; 최영신·황정임, 2006; 최인섭·박철현, 1995).

그렇다면 범죄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범죄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영향력을 가진 요인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고 한다. 보호요인은 일반적으로 직면한 위험에 굴복하여 자신의 삶이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휘하고 중국에는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의미한다(양옥경 외, 2004: 41).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들은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위기로인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범죄학이나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이나 회복탄력성이론(resilience theory)은 범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 주는 보호요인들을 주목한다(신연희, 2012).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들이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출소자 재범문제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은 재범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로 가족과의 유대, 취업, 교육, 사회적 연계망과 지원, 교도소 수용 전후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환경들, 신앙, 출소 전 준비와 같은 요인들을 보고한다(Healy, 2010; McNeil, 2014). 관련 연구의 한 사례를 소개하면,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회정착 프로그램(re-entry programs)을 마친 1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가족과의 유대와 지원시스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활동에의 참여, 설정한 목적과 기준에 대한 헌신, 문화적인 표준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였다(Craig, 2023).

한편 출소자들의 재범을 단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요인들(나이, 가족과의 유대, 취업, 교육, 사회적 연계망,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범죄행위에 대한 단절을 성공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출소자가 스스로의 정체성(identity)을 변화시키는 이차적인 중지(secondary desistance)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출소자의 재범문제를 질적 연구로 접근한 연구들은 재범에 관한 이차

적인 중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논의한다(Bajo, 2020; McNeil, 2014; Vaughan, 2007; McNeil, 2006). 범죄행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은 출소자들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Bajo, 2020).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에 관해 보고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Buckley, 2021), 출소자들이 과거와는 구별되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였을 때 범죄행동의 중지(desistance)에 영향을 주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출소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적 활동들과 범죄를 반복하도록 하는 품행들을 중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출소자들의 자기이야기(narrative)를 통해 탐색하였다.

범죄자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현장에서도 유사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브라질의 휴마이타(Humaita) 교도소에서 시작된 아빠끼(APAC: Amando ao Proximo, Amaras a Cristo 혹은 APAC: the Association fo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the Conviction)³⁾에서는 출소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예측의 기준을 ‘주거, 가족, 멘토, 직업, 신앙’으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만큼 높은 교화성과를 내고 있다(소망교도소, 2021). 아빠끼에서는 출소 후 안정된 주거가 있는지, 함께 살거나 유대가 형성된 가족이 있는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이 있는지, 내적인 변화를 이끄는 종교가 있는지를 출소 후 사회정착 보호요인으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수용자교화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아빠끼의 관점을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하여 수용자 및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지지자원의 보호, 내적·심리적 변화, 경제적 안정,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국내의 연구도 있다(신연희, 2023: 221-222).

3) 아빠끼(APAC: Amando ao Proximo, Amaras a Cristo)는 브라질어로 ‘이웃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을 뜻한다. 폭력과 탈옥이 난무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브라질의 휴마이타(Humaita) 교도소에서 1972년부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수용자에 대한 전도와 후원 등 수용자 교화에 헌신한 오토보니 박사가 자신의 사역에 부여한 의미이다(소망교도소, 2021: 314).

2.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1) 내러티브 연구방법과 연구에의 적용

① 내러티브 탐구와 연구절차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연구 참여자가 자기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찰하게 되고 이야기 속에 내재된 중요한 사건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내러티브 탐구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클랜디닌과 케인(Clandinin & Caine, 2013)은 내러티브탐구에 의한 접근(narrative inquiry's approach)은 개인들이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언어적, 제도적 이야기를 통해 구체화시킨 개인들의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보았다. 한편,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storytelling),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함(re-storytelling)으로써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생에 대한 회고를 통해 삶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경험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하는 치료기법(narrative therapy)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이야기된 생생하고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독특한 삶의 경험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조화 및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에 이르게 한 배경으로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개별적 특성들, 수용생활에서의 일상적인 경험들과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values)와 감정(feeling)이 출소 후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떻게 연관되고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Montgomery, 2023: 8).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분석하는 경우 사례들의 공통되거나 다른 경험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각의 이야기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대상자의 이야기가 자료가 되는 질적 연구방법이며, 질적 연구

의 특성상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특별히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생애 전체를 과정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연구대상자의 삶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생애과정 전체로 종합하여 조망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자료의 분석은 생애 전체의 이야기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주된 이슈를 발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Clandinin, 2006).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말한 자기이야기를 이해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정형화된 분석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내러티브 연구방법의 특징이다.

내러티브 연구의 절차는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기”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 “현장 이야기를 구성하기”를 거쳐, “현장이야기를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진행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최신현·김갑숙 2018 재인용). “현장으로 들어가기”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만나는 단계이다. “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는 현장 텍스트를 쓰는 과정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연구자는 기록하게 된다. “현장이야기를 구성하기”에서는 현장에서 기록한 텍스트를 의미있게 재구성하게 되며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반복해서 이야기 한 내용, 이야기 한 과정에서의 감정이나 말투 등을 반영하게 된다. “현장이야기를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찾아가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며,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일에 해당한다.

② 내러티브 연구절차의 적용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를 수정하여 4단계로 진행하였다, “현장으로 들어가기”(1단계), “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2단계), “현장이야기로부터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3단계),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Clandinin와 Connelly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연구절차에서 “현장 이야기 구성하기”와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를 결합하여 4단계로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내러티브 연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현장으로 들어가기): 성공적 출소자의 삶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두 곳의 교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교정위원들로부터 각각 한 사람씩 소개받은 출소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 먼저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다.

2단계(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며 자료 수집단계에 해당한다. 삶의 경험들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눈물, 감정표현 등) 내용을 텍스트로 기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 준 이야기는 현장 텍스트가 되며 이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 텍스트의 원 자료가 된다.

3단계(현장이야기를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기) :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이야기(현장 텍스트)를 연구자가 구성해 가면서 연구 텍스트를 쓰는 단계이다. 현장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 만큼 반복되거나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기도 하고 연구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도 다수 있기 마련이다.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들, 삶에 영향을 준 핵심 요인들, 주된 경험들의 의미 등을 해석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작성했다.

4단계(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은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단계이다.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 연구의 의미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최신현·김갑숙 2018 재인용). 이 연구에서 연구 텍스트 구성은 두 가지로 진행하였는데, 생애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특성과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경험들을 탐색하는 일, 그리고 생애단계별로 구조화된 모형을 해체하여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관한 모형으로 재구조화하였다.

2) 범죄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를 출소자에게 적용한 국외의 연구로는 사회 재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네 명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겪은 의미있는 삶의 경험에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의 특별한 경험과

감정이 출소 후의 사회정착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삶의 연속성 속에서 탐색했다(Montgomery, 2023). 출소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이 출소자들의 개별적인 성공과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15명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보여준 연구도 있다(Hix, 2017). 교도소 출소자 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적인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심리적 변화, 안정성의 증가, 주위로부터의 지원이고, 세부적으로는 10개의 하위 주제들인데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의 증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사고와 행동의 변화에 기대, 재정적 안정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LaFemina, 2023).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범죄행위를 중지한 출소자(19명)와 비슷한 지역사회에 살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12명)을 비교한 연구(Silva, 2016)는 범죄행위를 중지시키는 혹은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경로는 둘 사이에 비슷함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사회통합에 성공한 출소자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범죄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원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의 형성”과 같은 내적인 원천들(internal sources)이 중요하며 따라서 범죄적이었던 과거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은 동료기반의 프로그램, 상호적인 지지집단들, 멘토링 관계와 같은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자기개념(self-concepts)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제안하였다(Silva, 2016).

국내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출소자에 적용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처벌을 받고 있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는 드물게 발견된다. 초기적 연구로는 사회 내에서 전자감독 처분을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자 세 명의 삶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여 전자발찌 성폭력 범죄자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연구들을 수 있다(윤은주, 2014).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구로는 교도소에 수용된 성폭력 가해자로서 교도소에서 진행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탐구하고 재범방지 방안을 제안한 연구(최신현·김갑숙, 2018)와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동기의 외상(아동 학대, 가족의 해체, 존중받지 못한 경험들, 일탈적인 경험들)과 누범과의 연계성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탐구한 연구(김숙희, 2022)가 있다.

출소자의 재범예방에 관한 보호요인 및 출소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합 보호요인으로는 종교, 가족, 직업, 새로운 정체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지지집단 및 멘토, 의미있는 경험에의 참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이 제기한 요인들을 주목하면서 사회정착에 성공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출소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들의 인생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한 유형이다. 개인들의 인생이야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된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방법이다.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출소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완전 개방형의 비구조화 방식으로 이야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야기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추가 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방식도 병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두 사례에 대해 초기면접, 본 면접, 추가면접으로 진행된 내러티브는 2023년 9월21일에 시작하여 2023년 11월14일에 완료되었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면접의 구성

1) 연구 참여자 선정과 내러티브 수행

연구대상자는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소자이다. 수형자의 재복역률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출소 후 3년 이상 준법생활을 한 출소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⁴⁾ 연구자가 보유한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편의표집 방법으로 두 사례를 선정하

였다.5) 연구 참여자의 기초정보 및 내러티브 수행의 구성과 기간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초정보

| 구분 | 기본 사항 | 범죄 관련사항 | 출소 후 생활 개요 |
|------|----------------------|-----------------------------------------------------------------------------------|---------------------------------------------------------------------------------------------------------------------------------------------------------|
| 사례 1 | 여성, 60세, 2020년 출소 | 사기 1회, 징역1년(2020년 가석방 출소, 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남편, 자녀(2남 1녀), • 동거가족: 남편, 아들 • 직업: 호스피스병동 간호업무 • 보람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정착 |
| 사례 2 | 남성, 64세, 2012년 출소 | 폭력 전과 다수(교정기관 입·출소 5회 반복), 실형(1회, 징역1년, 2001년 가석방출소, 폭력), 마지막 출소(2012년, 미결수용,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아내, 자녀(아들 한명) • 동거가족: 아내 • 직업: 자영업(보드카페 운영) •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

<표 2> 내러티브 수행의 구성과 기간

|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
| 사례 1 (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면접: 1시간 30분 • 초기면접, 기초자료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면접: 5시간30분 • 본 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면접: 5시간20분 • 추가면접(반구조화 방식) |
| 사례 2 (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면접: 5시간 • 초기 면접, 본 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면접: 30분 • 간단한 질문과 추가면접에 대한 합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면접 • 추가면접(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 사용) |

2. 내러티브 연구 진행과정과 자료 분석

내러티브 연구방법의 일반적인 절차인 다섯 단계(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쓰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쓰기, 연구텍스트 구성하기)를 수정·적

4) 출소자 재범(재복역률)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은 금고이상을 형을 받고 복역하였던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복역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2021년을 기준으로 재복역률은 24.6%이다(법무연수원, 2023: 516-517).

5) 연구 참여자들은 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교정위원들로부터 소개받았는데, 교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때부터 출소 후 현재까지 연구 참여자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한다.

용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0; 최신현·김갑숙 2018 재인용). 네 단계로 진행된 연구절차는 “현장으로 들어가기”(1단계), “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2단계: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쓰기과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통합), “현장이야기로부터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3단계),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4단계)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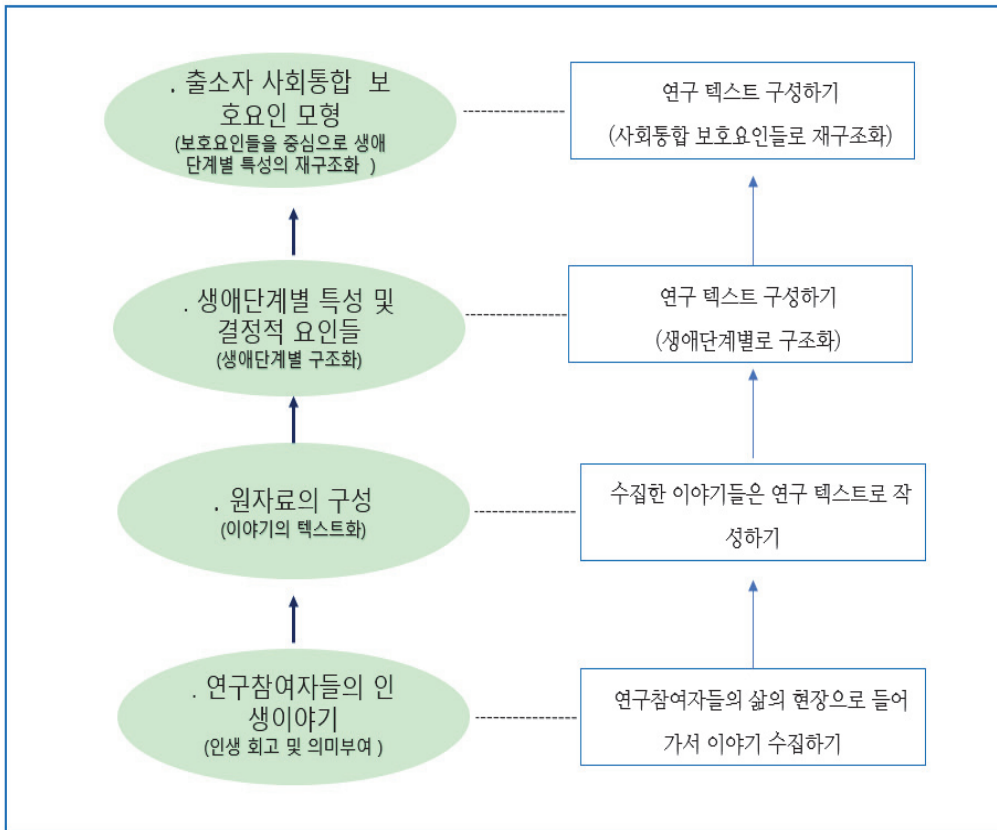
1단계(현장으로 들어가기)에서는 사회통합에 성공한 남녀 출소자 각 각 한명씩을 소개받고, 초기 접촉(전화, 대면)을 통해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았다. 변화된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출소자들에게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모델이 찾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일면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 동조하면서 연구에의 참여의사를 밝혔다.

2단계(현장에서 이야기 수집하기)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며 자료 수집단계에 해당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현장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 준 이야기는 현장 텍스트가 되고 이는 연구 텍스트의 원 자료이다. “살아온 과정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라는 연구자의 요구에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의 역할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준에서 짧게 질문하면서 경청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바에 의해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등한 관계이고 협력자가 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조언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며, 연구 참여자는 자기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장 바르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단계(현장이야기를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기):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면접도 함께 진행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들, 삶에 영향을 준 핵심 요인들, 주된 경험들의 의미 등을 해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간단한 추가질문 및 추가면접을 통해 해석의 정확성과 이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이나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질적 자료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단계(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마지막 단계인 “연구텍스트 구성하기”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작성된 연구텍스트를 연구목적에 맞게 구조화, 해체 및 재구조화하였다. 연구 텍스트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생애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특성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경험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 텍스트의 구성은 생애단계별로 구조화된 내용을 해체하여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관한 모형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대한 모형에서는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요인은 핵심적 보호요인으로, 사례에 따라 다르게 부각된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림 1]은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한 이 연구의 진행과정이다.



[그림 1]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한 연구과정

IV. 주요발견사항

1. 출소자 내러티브에 나타난 생애단계별 삶의 경험들

이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입각하여 개별 사례들의 생애단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출소 후 단계에서 사회정착에 성공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비중을 두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출소 후 사회통합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생애단계별 특성을 탐색하였다.

1) 사례 1의 생애단계별 이해

사례1은 60세의 여성으로서 사기 1회의 전력이 있으며 2020년 가석방 출소하였으므로 사회에 복귀한 지 3년이 넘었다. 현재는 별거 후 재결합한 남편, 아들과 함께 출소자 주거지원 혜택을 받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경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위한 친정 엄마의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활동들은 아들 네 명은 성공적으로 키웠으나 두 딸들의 희생을 담보하였다. 어린 딸(사례)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성폭행에 노출되었으며 남자에 대한 불신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 것은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화의 결과이다. 공부 잘 하였지만 딸이기 때문에 여상고의 야간 과정에 진학한 것도 아들과 딸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련된다. 여상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하였고, 고객의 한 사람이었던 남자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했고 내키지 않은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이다.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을 빈곤한 가운데 수발해야 하는 고된 시집살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알았고 세 아이를 키우는 힘든 과정에서도 가계 수입에 보태고자 부업까지 계속했다. 평소에 알콜 중독에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5년 넘게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고 외상수발을 한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향락 생활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억울하였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새로운 사업도 과감히 시작하는 도전적인 성품은 어

릴 적부터 가사 일에 참여하여 노동이 몸에 습성화되었고, 생계를 위해 어떤 유형의 장사든 부지런히 하던 친정어머니로부터 학습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시부모 모시고 세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부업을 꾸준히 했고,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한 후에는 하는 사업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영리한 운영으로 주위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아 사업이 번성했다. 그러나 연속적인 교통사고에 이어 사업의 침체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욕심이 과했을까? 손실을 손쉽게 만회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은 부채를 들여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고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만 갔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로 결국 범죄자가 되었다.

〈표 3〉에서는 사례 1의 삶의 경험들을 생애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3 > 사례1의 생애단계별 이해

| 구분 | 가정환경 | | | 개별 특성 | | | 의미있는 사건 | | | |
|---------|--------------------------|-------------------------------------------------------------|---------------------------------------------|------------------------------------------|-------------------------------------------------------------------|------------------------------|-----------------------------------|-----------------------------------|--------------------------------------------|--------------------------------------------|
| -이동기 | 홀어머니, 4남2녀중 5째 | 경제적 어려웠음 | 가족 간에 화목했음 | 떨어머서 보살핌 받지 못함 | 언니와 함께 가사일 돌봄 | 영리하고 부지런함이 승성화됨 | 4) 딸에 대한 차별을 당연히 여겼음 | 어릴 때 부친이 돌아가신 | 엄마가 생계를 무었이든 함 | 엄마가 장사로 집을 자주 비움 |
| 청소년·청년기 | 엄마가 여러 종류 장사를 함 | 2)보호없이 방치된 날이 많았음 | 두딸(언니와 자신)이 집안살림 함 | 성폭행 충격으로 자신을 여자로서 흠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가지게 됨 |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교회에서 여학생회장, 활동하면서 무난한 청소년기 됨 | 성폭행 피해 (중학교 때 언니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 성폭행 피해 (중학교 때 언니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 서울여상 졸업 후 취업 | 데이트 공간 한 남자와 결혼함 | 데이트 공간 한 남자와 결혼함 |
| -장년기 | 반대한 결혼을 강행함 2남1녀출산 | 시부(알콜중독), 시모(경제권독점), 남편(알콜중독·경제적 무능·가족에게 무심) 등으로 빈궁하고 힘든 생활 | 부채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아들과 딸에게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줌 | 남편 무능에 의도까지 검쳐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 소동 후 방탕한 생활함 | 결혼생활에 불만(힘든 시집 삶)과 남편의 불성실, 건강악화 등이지만 여자의 끈기가 속명이고 도리인줄 알고 최선을 다함 | 남편의 외도(31세, 셋째 아이 출산 후 알게 됨) | 남편이 사업 접고 시부모 남작고한 후 본격적 경영 활동 참여 | 사업실패가 파국에 달하자 종교에 의지하고 잘 못을 깨닫게 됨 | 시기 및 수용생활(징역 1년, 3개월 가석방)은 신앙생활로 거뜬나는 계기 됨 | 시기 및 수용생활(징역 1년, 3개월 가석방)은 신앙생활로 거뜬나는 계기 됨 |
| -현재 | 가족(남편, 아들)과 생활 잘살기 살고 있음 | 소득의 범위에서 생필품 충실히 살고 있음 | 형제자매와는 좋은 관계임. | 출소 자주거 지원 받아 가족이 함께 살.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채를 상환하고 있음. | 호스피스 간호사 | 호스피스 간호사 | 하사모 공동체 회원(여자수용자진회 후원) | 영적체험으로 신앙심 강화 | 영적체험으로 신앙심 강화 |

2) 사례 2 생애단계별 이해

사례2는 64세의 남성으로 폭력으로 수차례 교정시설 입·출소를 반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소한 시기는 2012년이므로 사회에 정착한지 12년이 되었다. 현재는 재혼한 아내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경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3남1녀 중 둘째로 가족 간에도 화목했다. 타고난 영리함과 우수한 체격, 깡이 있는 기질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육상선수로도 재능을 발휘했다. 그렇게 성장해서 육사를 가고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휘하며 살겠다는 장래 희망도 확고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쳐서 전학을 온 형과 고1때 어울리기 시작하였고, 우연하게 휘말린 패싸움에서 심하게 피해를 입힌 탓에 중퇴를 당했다. 중퇴 후 학교 밖에서 만나는 비행 청소년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주먹과 기질과 성격은 잘 맞았고 싸움을 잘하는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되었다.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이다.

전문적 조직폭력배가 되어 그 세계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조직에서 싸움 실력도 인정받고 지위도 확고해졌으며, 조직이 관리하는 업소의 이권을 누리면서 살았다. 건전하지 못한 생활 습관 또한 그곳에서의 삶이었다. 이권다툼으로 일어나는 잦은 싸움은 폭력행위를 반복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경찰체포, 교정시설 입·출소가 지속되었다. 30대 초반에 이르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으니 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긴 세월 그 세계에서만 살아 온 탓에 다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삶의 터전도 없었다. 무엇보다 조직에서 확보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것은 편리하였다. 그러는 동안 아내와 아들은 자신을 떠나버렸고 여동생 덕에 아들은 수년 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보살피지 못한 가장이 되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들을 생각하여 변화를 결심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인 수용자로 인정받기도 하였지만, 수십 년 간 지속해온 조직폭력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삶 속에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의 삶은 50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표 4〉에서는 사례 2의 삶의 경험들을 생애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4〉 사례2의 생애단계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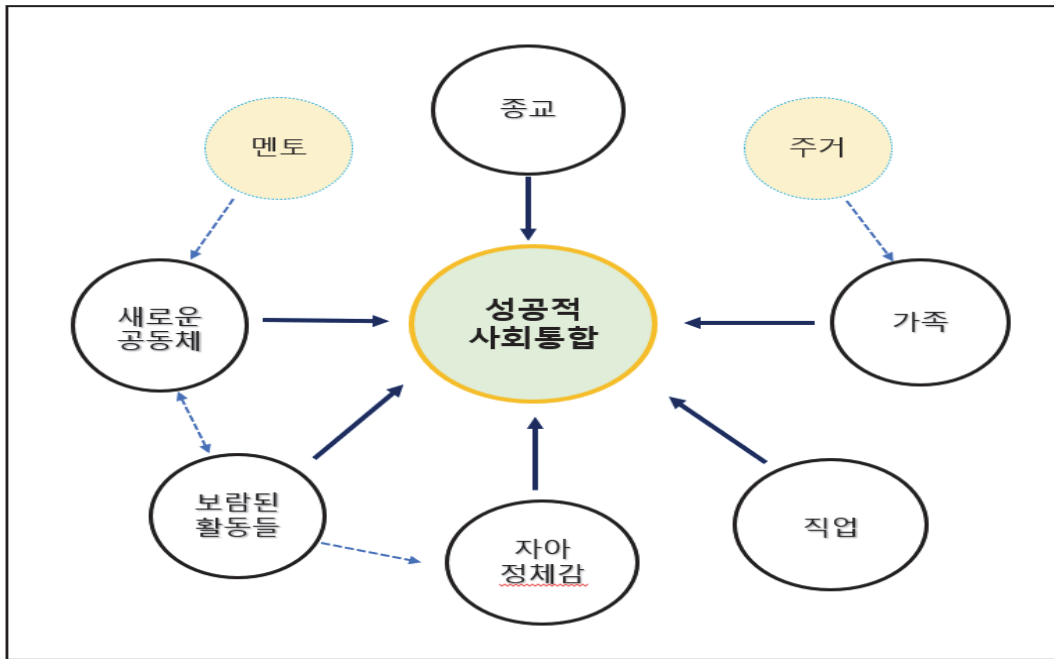
| 구분 | 가정환경 | 개별 특성 | 의미있는 사건 |
|---------|------------------------------------------------------------|--------------------------------------------------------------|-----------------------------------------------------------------|
| -이동기 | 양부모, 3남1녀 중 둘째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좋음 | 강한 기질, 모나지는 않았음 친구들과 함께 물러다니기를 즐겼음 머리 좋음 육상선수체격이 좋음 | 안정적 가정에서 특별히 위기적 사건없이 성장함 |
| 청소년·청년기 | 싸울 때 마다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가벼운 처벌 3남1녀 사이 좋았음 | 강한기질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집단 의 리더로 활동 유형업소 이권 이 수단 | 고 2 때 패싸움 중퇴, 학교 밖 비행친구들과 어울림 폭력조직원이 됨 경찰체포, 구치소 수용 시작 |
| -장년기 | 결혼, 아들 출생 처가 아들을 데리고 별거함 3) 출소 후 여동생이 아들과 함께 돌봐주어 생활 | 아들 로 괴로움 간강에 해로움: 술, 마약, 자해 등 조직폭력 계속함 | 반복되는 입출소 수용생활 중 종교 접함 아들 과 헤어짐 및 재결합 |
| -현재 | 재혼 과 가정형성 아들과 의 관계강화 부모 및 형제들과 좋은 관계 | 세로운 권 등체 소속 깊은 신앙 보람된 삶 (자부심) | 간이식 수술 아들이 과거전력 없게 되었으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좋아함. |

2.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

이하에서는 출소 후 단계에서의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출소자 사회정착 보호요인들로 탐색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일반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른다. 출소자에게 적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을 극복하고 범 죄자라는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요인들이다. 범 죄로부터 벗어난 삶의 양식(crime-free life style)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중지(desistance)’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보호요인은 기능 및 역할에서 유사하다.

출소자들의 내러티브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종교(내적변화), 가족(지지 자원, 사회적 유대, 변화의 동력),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새로운 생활세계에 정착), 정체성 변화(긍정적 자기개념 형성, 변화에 대한 자기 확신), 멘토(새로운 공동체 연계, 지지자), 보람된 활동(의미있는 경험들), 직업(경제적 안정), 주거(안정적 생활기반) 이다.

여덟 개의 보호요인들 중에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핵심적 보호요인(종교, 가족, 공동체 소속, 자아정체감, 보람된 활동, 직업)과 개별 사례별에 발견된 추가적인 보호요인(멘토, 주거)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통합에 대한 출소자들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종교를 통한 내적인 변화와 삶의 기준의 설정, 변화의 계기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가족, 새로운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것, 새로운 공동체에 연계해 주고 지지자가 되어 주는 멘토, 소속된 공동체와 협력하여 보람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 공동체 소속감이 초래하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직업과 주거를 갖는 것과 같은 요인들의 작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는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을 구성하는 모형이다.



[그림 2]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들

이하에서는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에 관한 사례별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다.

1) 종교

의미있는 서술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삶에 대한 감사,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음”등이다.

종교의 가르침은 선하고 바른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준다. 또한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해 준다. 종교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선한 성품을 갖도록 해 준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종교를 통한 내적인 변화, 즉 속사람의 변화가 전제될 때 이전과는 다른 품행이 가능해 진다. 종교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재사회화 시킨다는 점에서, 신앙을 갖고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범죄와의 무관한 삶이 될 것이다.

① 중심에 위치한 분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방향했던 저를 너그러우심으로 인내 하고 기다려 주셨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때 치유의 체험으로 제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제2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전지전능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 나의 아버지 이십니다.”(사례2)

⇒ 삶에 대한 기본자세는 삶의 주인이 되는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압류가 시작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박이 커지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40일 넘게 기도하였는데 새벽기도 중에 ‘정직해라.’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재기해서 돈을 갚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원금만 갚아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각 각 매달 50만원, 3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받은 ‘정직해라’는 음성은 제가 평생 따를 것입니다.”(사례1)

⇒ 정직한 삶 등과 같이 바르게 사는 기준은 신앙의 가르침에 입각한 것

②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신앙입니다. 구치소, 교도소에 온 사람들 중에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이 바르지 못한 것이지요. 성폭력으로 6년 형을 받았다면 죄질이 엄청 나쁜 것일 텐데 죄책감이 없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종교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사례 2)

⇒ 바른 정신, 바른 속사람을 만드는 것은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법, 세상 법 모두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정직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용서를 다 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피해를 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

아야 진짜 용서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게 빛을 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영화 ‘밀양’의 가해자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사례1)

⇒ 신앙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줌

③ 삶에 대한 감사함과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대기하면서 기도 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했더니, 제 입으로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너를 고쳐 줄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기적 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 10년이 되었는데 간을 준 아들이나 저나 너무나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남전도회 회장, 해외선교 활동 등 술선수범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의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사례2)

⇒ 신이 허락하신 생명에 감사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삶

“간절한 기도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직해라는 음성과 함께 채권자들이 ‘그들이 위로자, 격려자가 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두 분의 채권자는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고 저를 위로까지 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털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분들께 빛을 갹아 나갈 것이고, 믿는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사례1)

⇒ 영적체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으며, 신이 주관하는 삶이므로 신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함

④ 염려와 걱정이 없음

“장래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요. 이쁜 행동을 하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올해 4월에 아버지 구순 잔치 해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애경사에 찾아 다녀서 그런지 오신 분들도 많았고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들 결혼식에

는 이보다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제게 간을 준 아들인데 무엇이든 줄 수 있지요. 벌여놓은 재산은 없지만 제 나이 65세라도 제 마음엔 앞으로 20년 이상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도 만들어 주셨기에 먼 훗날까지 염려 안 합니다.”(사례2)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에게 의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래에 대한 확신

“지금 하고 있는 호스피스 직업이 보람도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라 좋은데 60세가 정년이라 12월에 퇴사해야 되요.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힘이 많이 드는 몸으로 하는 일이라 오래도록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장애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겠지요.”(사례1)

⇒ 지금까지처럼 장래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음

2) 가족

의미있는 서술들은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 어려울 때 도와주는 가족들” 등이다.

가족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 위로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의 동력이고 변화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지자원이다. 사례2의 경우 아들(복역시절 아들 때문에 괴로워서 신앙을 갖게 되고 내적 변화를 맞게 된 계기, 간암 판정 후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조폭 생활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된 동기가 됨), 아버지(청소년기부터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가 풀려나게 해 주었고,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기도해 주심), 여동생(아들이 여덟 살 때부터 키워주었고, 곁에서 보살펴 주는 친근한 관계), 남동생(수술비를 선 듯 내어주고 힘이 되어 줌), 아내(새로 이룬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게 해 줌) 등 가족들은 지지자원이 된다.

한편 사례 1의 경우 성장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딸이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희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관계는 원만하며 어려울 때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남편은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식들은 삶의 경험에서 특별하다. 범행과정에서 딸과 아들의 삶을 괴롭힌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의 장래에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전과는 다르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이유로 작용

했다.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내는 삶을 살아 온 것은, 자식들을 홀로 키우면서 자식들을 위해 어떤 일도 망설이지 않았던 친정어머니의 모습과 흡사하다. 친정엄마는 정서적인 위안자이고, 언니는 마음의 괴로움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며, 오빠들과 남동생은 위기에 처했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지자원이다. 사례1의 경우 큰 오빠 부부는 피해자에게 변제도 해 주었지만 잘못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큰 오빠 부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가장 큰 이유이고 힘든 삶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다.

① 새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가족

“조직 생활 중에 수 십년간 해 왔던 지나친 음주, 흡연, 마약, 전신문신 등으로 간이 손상되어 간경화 진단을 2010년경(51세)에 받았습니다. 간경화는 치료가 되지 않고 어느 시일이 지나면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에 머지않은 죽음을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범죄자가 아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져서 여동생이 아들을 8살부터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간 방탕한 생활로 잘 돌보아 주지 못하였고 아버 노릇도 잘못해 주었는데 그 아들이 임종 시 염할 때 내 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 할 것인가는 죽음을 앞두고 힘든 숙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자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전념하기로 하고 예배는 물론 이요 전도와 선교사역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간경화가 간암으로 악화되고 합병증으로 배에 복수가 차고 탈장이 생겼고 얼굴색은 황달에서 흑달로 변하고 체중은 약 20여 킬로 빠져서 기력도 없어지고 100미터를 걷자면 3~4번은 쉬어서 걸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네게 남은 삶은 머지않은 것 같아서 더더욱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 때문이지요. 부끄러웠던 내 삶이지만 그래도 말년에 열심히 선을 위해 살려고 노력 했다는 흔적이라도 아들에게 전달되어 미움의 감정이 어느 정도 소멸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었습니다.”(사례2)

⇒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은 싶은 바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동기를 자극하고 견뎌내게 하는 힘

“실형을 선고받은 2000년(41세), 아들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년에 있을 초등학교

입학식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는데 옆방(마약방)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찬송가 소리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꼭 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평소에 재소자를 붙들고 기도하던 모습을 자주 보았던 교도관(교정선교 사명을 가진 목사교도관)에게 가서 성경을 달라고 했으나 평소에 불교신자였던 터라 장난하는 줄 알고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재차 요구해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 성경책을 달라고 했고 성경지도도 받고 필사도 하고 종교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 소문이 났고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했고 소장님으로부터도 표창장도 받았습니다.”(사례2)

⇒ 범죄자로서의 삶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을 갖게 된 것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

“제 아들은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제가 남들 부모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도 보내주지 않았지만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자라면서 불평 없이 키운 아들이기에 너무 고맙고 기특하죠. 제가 잘 돌보지도 못하고 잘못 살아서 병까지 들었는데 그런 아빠를 살리겠다고 간도 내어주고, 50이 넘어서야 정신 차리고 사는 아빠를 좋아해 주니 더욱 기특하고요.”(사례2)

⇒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는 삶, 자식에게 당연한 부모가 되고 싶음

“딸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부채를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딸에게 빚을 지웠고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 대출이자를 갚아가고 있고 중개사 사무실 보증금 문제를 감당해 주었어요. 딸도 세무조사까지 받았고 전세살고 있는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도 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간 후에 저에 대해 원망을 많이 했어요. 딸이 유치원 교사인데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들어 온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상태라 제가 조금은 덜 미안해 졌습니다.”(사례1)

⇒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

“교도소에서 괴로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 때문이지요. 이들에 한 번씩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간혹 저를 면회하러 왔거든요. 출소 한 후 한동안은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저의 채무 때문에 자식들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인지 예전과 달리 삐딱하게 굴고 대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다시는 부끄러운 엄마가 돼서는 안 되지요.”(사례1)

⇒ 수용생활을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은 자식들, 어려운 생활일지라도 버텨내게 하는 동인이 됨.

② 가족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자원

“우리 가족은 원래 화목했습니다. 잘 만나지는 않지만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줍니다. 아버지도 노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며, 여동생은 아들이 8살 때부터 돌봐주었고 지금도 친해서 아내랑 여행 갈 때 여동생도 함께 가기도 합니다. 남동생은 간이식 때 수술비를 선뜻 지원해 주었지요. 저의 모난 행동으로 한때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지만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잘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가족이기에 고맙죠.”(사례2)

⇒ 가족은 필요한 자원의 공급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들

“친정 엄마와 형제들, 언니는 비교적 잘 살고 있으며, 필요할 때 도움도 줍니다. 큰 오빠와 올케가 주어서 한사람의 빚은 해결해 주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큰 오빠와 올케가 찾아왔어요. ‘네가 열심히 살아 왔던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산 것이다. 올케를 통해 빌린 1억을 대신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진심어린 충고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사례1)

⇒ 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이면서 힘이 되는 사람

3) 공동체 소속감

의미있는 서술들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동역자·협력자, 인정

해 주고 좋아함” 등이다.

공동체는 자신이 교제하고 활동하는 주된 생활세계가 된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친근하게 교제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함께 하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강화된다. 공동체는 자주 만나는 이웃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나아가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공동체 성원들로부터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 전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정착을 방해하는 것과는 달리 인정받는 것은 전과자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공동체에 속한 것에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두 사례 모두 출소 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사례1의 경우 수용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교도소 수용자를 돕는 공동체의 성원이 되었다. 자신은 전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여자수용자들을 위한 종교집회를 지원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수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사례 2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도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선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공동체에서 노숙자 봉사, 해외 선교활동 등으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조직폭력이라는 과거에 속했던 세계와는 다른 생활세계에 소속해 있다. 두 사례 모두 전과자인 자신을 편견없이 받아준 공동체 사람들은 모범적이고 선한 사람들이다. 소속된 공동체는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하는 터전이 되고 있다.

① 과거에 사귀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30여년 간 조직 생활을 하는 동안 술, 담배, 폭력, 문신 등 이것들을 조직원들과 어울려서 하는 일이 몸에 배었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인맥도 생기고 그 때 사업이라고는 유흥업 계통 이다보니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영등포구치소에 있었던 동안 교도관이었던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죄성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지요. 목사님을 통해 교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조직폭력을 할 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출소했을 당시만 해도 제 눈빛을 바로 쳐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주 썩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 저를 배척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지금은 선한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입니다. 제게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직 때 만난 사람들은 애경사에 참여하는 정도이고 달리 교제하지 않습니다.”(사례2)

⇒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속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요한 생활세계가 됨

“의정부교도소에 있을 때 여사 집회에 봉사활동으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사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하더라고요. 하사모 사람들은 교도소 여자수용자 종교 집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예요. 저도 교도소 여자 수감자로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하나인 셈이죠. 이 모임을 이끄는 권사님은 OO병원장의 사모님이세요. 다른 분들도 저와는 다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전과자인 저를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저 같은 출소자는 교도소와 얽히는 일은 정말 싫어요. 그래도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좋은 분들과 보람된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사례1)

⇒ 소속된 공동체에서 선하고 보람된 일을 함께 함

② 인정해 주는 사람

“저랑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분들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외부에서 하는 봉사활동, 선교활동 모두 함께 합니다. 저는 특별히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는 봉사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진 찍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사례2)

⇒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소속된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병원에서 저는 칭찬을 받는 요양사입니다. 환자분들이나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성의를 다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직장인이 된 것 같아 보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인정해 줍니다. 병원에서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기

분이 좋습니다.”(사례1

⇒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업무를 잘해 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음

”하사모에서 함께 일하는 권사님들은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났으니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으니 과거를 감출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사이입니다. 하사모의 회계업무는 제가 하고 있는데 저를 믿어주기 때문이지요.”(사례1)

⇒ 자신을 인정해 주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상호호혜적인 관계

4) 자아정체감 (identity)

의미있는 서술들은 “이전과는 다른 나, 좋은 사람들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남을 돕는 일 등”이다.

자아정체감(identity)은 자신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고 자기평가이다.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고 자기 개념(self concept)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에 성공한 출소자들은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사람에 의한 평가가 자신에게 투영(looking-glass)되므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와도 관련된다. 이런 까닭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멘토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나 모임에 소속되는 것도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젠 범죄자가 아니라 나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평가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이다. 변화된 삶의 생생한 증거는 복귀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공동체에 편입되고 그들과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피해자와 사회에 피해를 주었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전환했고 과거의 삶으로는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은 사회통합에 성공한 출소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두 사례 모두에게서도 확인되었다.

① 변화된 삶

“지난 세월을 되새겨 보면 후회가 많이 되죠. 남들처럼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도 없고

근 30년간을 기술이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덧없이 보낸 지난 세월이 아쉽죠. 그렇지만 그런 후회되는 삶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위안을 갖습니다.”(사례2)

⇒ 현재의 삶, 변화된 나를 있게 했으므로 후회되는 과거도 나의 삶으로 받아들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은 ‘내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르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좋습니다. 저도 ‘어머니 어떻게 해 드릴까?’ 항상 적극적으로 묻고, 환자들도 그런 제가 근무하는 날이 제일 편하다고 하십니다.”(사례1)

⇒ 일하는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채권자 두 분은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고 제가 진심으로 사죄한 것을 받아주셨어요. ‘힘이 닿는데 까지만 갚아라.’고 하시면서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어주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저를 위로해 줍니다.”(사례1)

⇒ 피해자조차도 믿어주니 자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

②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자부심

“교회행사나 교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에서 사진을 찍어 주는 일은 제가 담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진기술은 특별히 배운 것이 없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장면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15-6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찬양, 워십, 악기연주 등으로 사역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 후부터는 봉사활동에나 선교 사역에는 항상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 갔어도 제 사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 뒷 편에 항상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사례2)

⇒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

“의정부교도소에서 여사집회에 오신 그 분들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 할 때 받은 6개월 간 일해서 받은 작업장려금(9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때 생각하는

데 그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사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의정부교도소 여사 기독교 집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고 회계처리를 하고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족할 것 없는 분들인데 어두운 곳을 돌보는 훌륭한 분들입니다.”(사례1)

⇒ 사회에서 잘살고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일을 위해 동역자가 된 사람

5) 멘토

의미있는 서술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하는 분” 등이다.

멘토는 새로운 삶의 안내자, 공동체와 연결해 주는 연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위기에 직면할 때 정신적·물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삶의 기준과 방식에 관해 종교가 내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면 멘토는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출소자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대개는 멘토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된 결과이다. 멘토는 자신을 지지해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사회자본이다.

사례2의 경우, 향소심에서 1년6월이 확정되고 의정부교도소 공장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에 조폭들이 있기 때문에 편히 생활할 수 있었던 탓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했다. 마음의 자책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멘토였던 목사님이 구치소 야간근무 하는 다음 날은 아침 퇴근길에 의정부에 들러 기도해 주시고 가는 것이 마음을 다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례2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멘토를 찾았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은 삶의 경험에서 중요하여 멘토를 통해 편입된 교회공동체를 주된 생활세계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사례1의 경우 멘토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자기 삶에 대해 주도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신앙생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방식인 것은 개인적 성향에 기인한다,

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저와 함께 교도소 사역을 함께하는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따라 여사 집회에 오셨던 분들이고 그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게 훌륭한 일을 하는 권사님들을 알게 해 주셨고

그분들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연결해 주신 분은 목사님이지요.”(사례1)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함께 해외선교, 노숙자 봉사, 전도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사례2)

⇒ 동역자들과의 만남은 멘토를 통해 연결됨.

② 어려울 때 위로와 지지를 주신 분

“구치소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그때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지요. 항소심에서 1년6월이 확정되고 의정부교도소 공장에서 배치되었으며, 조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편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해서 수용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자책과 갈등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야근 후 아침 퇴근 길에 의정부에 들러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 잡고 구치소에서 다짐했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병이 악화되어 찾아갔을 때 탓하지 않고 받아주셨고 간이식 수술 때는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구치소에 있었을 때 교도관이셨는데, 그 때 방황하던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은 저의 영의 스승이며 영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사례2)

⇒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자가 되어 주신 분이고 위로자이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분

“교도소 여사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당시에 집회도 2주에 한번 정도나 열렸습니다.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지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여 설교지를 우편으로 배달받았고, 그것이 제 마음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 수용자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달에 두 번씩 우표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우표는 오빠나 언니가 면회 와서 주고 간 영치금을 거기에 썼어요.”(사례1)

⇒ 도움이 갈급할 때 응해 주고 위로해 주신 분

6) 의미있는 활동들

의미있는 서술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기개념’, ‘선한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 등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이전과는 다

른 삶을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며,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보람된 활동들은 협력하는 공동체 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범죄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피해를 입힌 사회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자기위안도 되기 때문이다. 보람된 활동은 자아정체감형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사회에 해악을 끼쳤고 범죄자에서 혹은 주변과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므로 사람이었으므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의 외현화된 표출이다.

① 보람된 일을 행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호스피스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환자들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신 것 같다고 칭찬해요. 그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저를 찾는다고 해요. 제가 있는 날에는 환자들이 확실히 편안해 한다고 직원이 전해 주더라고요. 호스피스는 직업이니까 돈도 벌지만 보람이 있어서 좋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채무자 두 분께서도 저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셨으니 그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교도소 수용자를 지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봉사합니다.”(사례1)

⇒ 보람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주거지원을 해 주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너무 감사해서 담당 직원분께 가석방 출소자라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교통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 말에 몽클했습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사례1)

⇒ 의미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대부분의 인간에게 해당하는 선한 본성

“2012년 잠깐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에는 제가 과거에 변화되었던 모습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저도 간경화였기 때문에 간병인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침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간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점차 예수님처럼 돌보아 되겠다는 마음을 먹자 신기하게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남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사례2)

⇒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② 좋은 일을 해야한다는 책무감

“교도소에서의 기억은 떠올리기 싫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해 초에 교도소 선교단체에서 출소자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괴로웠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소자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다 드러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해야지요.”(사례1)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해를 끼친 사회에 대한 사죄의 마음

“저의 이야기가 교수님 연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저같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출소자들에게 선례를 제공하겠다는 연구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사례2)

⇒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7) 직업

의미있는 서술들은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 직업 활동을 계속해야 함” 등이다.

일정한 소득이 확보되는 것은 사회정착을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출소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범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안정은 생존과 관련된

가장 일차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직업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수단이므로 불법적 기회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① 수입이 있어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

“보드 카페 운영하는 것으로 임대료 내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니 살 만합니다. 가게에 보증금도 들어있으니 안심이 되지요. 운영비를 줄이려고 알바생을 쓰던 것도 끊었고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건강한 몸을 새로 얻었으니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서 노후가 걱정되지 않습니다.”(사례2)

⇒ 사업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고 있음

“의정부에서 나온 후에 아들이 소개해 준 ‘내일배움카드’ 300만원 중 250만원을 수강비로 내고 경락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한동안 했어요. 그런데 보다 의미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2022년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시간을 최대한으로 하면 월195만을 버는데 주거 지원받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 -만원, 두 분 채권자에게 -만원, 의정부교도소 여사집회 물품지원 등을 제하고 나면 제게 40만이 남아요. 많이 쪼들리지만 직장에서 월급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 앞으로도 일을 해야 합니다.”(사례1)

⇒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하므로 일을 계속할 것임

② 일을 해야 하는 내적 동기

“가게에서 열심히 벌어야 저랑 아내랑 살 수 있고, 가끔 좋은 일에 후원도 하지요. 또 열심히 살아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제게 바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성경 말씀도 부지런해라고 했으니까요.”(사례2)

⇒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기대는 열심히 사는 이유임

“딸을 결혼시킬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도 독립할 때 까지 엄마 노릇을 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 저를 믿고 기다려 주는 피해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사례1)

⇒ 일하는 것은 자신이 도리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보탬을 줄 수 방법임.

8) 주거

의미있는 서술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집이 있으니 다른 일을 할 수 있음” 등이다. 주거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정적 생활기반이다. 함께 살 공간이 없으면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이루어야 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가 어렵게 된다. 가족은 출소 후 사회통합을 돕는 일차적인 지지자원이고 변화된 삶을 이끄는 결정적 동인이기 때문이다. 주거의 안정성은 생존과 관련되며,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때 삶의 질은 물론이고 불법에 대한 유혹도 받게 된다.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갱생보호사업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출소 후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대부분의 출소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통합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족요인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별 출소자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주거가 불안정함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지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출소자 사회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사례1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① 주거는 사회정착의 일차적 기반

“의정부에서 나왔을 때는 식구들이 모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전세 보증금까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한 평수의 연립주택 이에요. 덕분에 제가 수감되면서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35평 연립인데 900보증금에 월 20만 임대료이고 저희 집이 꼭대기 층이라 위의 옥상까지 쓸 수가 있어요.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동안에는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덕분에 가족(남편, 딸, 아들)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이 집에서 살면서 딸이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사례1).

⇒ 지원받은 주거 덕분에 수용된 동안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게 됨

“그곳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범죄자의 일부는 교도소가 밖의 생활보다 살기에 더 낫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도소는 먹여주고, 자고, 입혀주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을 때 살 집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집이 있어야 그곳에서 살 수가 있죠. 함께 얼굴보고 사는 가족이 있어야 살아갈 힘도 생기지요.”(사례1).

⇒ 재범의 이유 중의 하나는 교도소가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며 주거문제도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음

V. 요약과 논의

1. 주요 발견사항 요약

이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내러티브 접근으로 사회정착을 달성한 두 명의 출소자들이 생애 전 과정에서 겪은 삶의 경험에 관한 사실적 이야기와 진솔한 감정표현을 바탕으로 범죄행동에 이르게 된 배경과 출소 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경험들을 과정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서 범죄행동에 이르게 된 원인을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출소 후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 보호요인까지를 포괄하였지만 연구 목적상 후자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출소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친 보호요인들에 관한 주된 발견사항을 요약하고 출소자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때, 생애 전체를 아우르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다. 그것들에는 범죄행위에 이르게 한 위기요인 혹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한 보호요인도 있다. 먼저, 범죄행위에 이르게 한 위기요인으로 사례 1(여성)의 경우에는 환경 특히 여성이 살아가기에는 불리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두드러진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생계에 나선 어머니는 딸들을 방임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위기로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사례 2(남성)의 경우 범죄행동을 초래한 위기로인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이 크다. 에너지가 넘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인정받기 좋아하고 닦친 일에는 지지 않는 강한 기질은 강점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게 했다.

한편 위기로 상황(범죄자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 보호요인도 있다. 출소자 사회통합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결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종교, 가족, 공동체 소속감, 멘토, 긍정적 정체성 형성, 의미있는 활동들,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면 가족, 멘토, 직업, 주거의 안정성과 같이 외적인 요인들과 함께 종교, 공동체 소속감, 긍정적 정체성, 의미있는 활동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도 동일한 비중으로 출소자 사회통합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이 드러났다.

먼저 ‘신앙’을 갖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종교는 삶을 변화시키게 된 원천적 이유였으며, 바르게 사는 삶의 기준이 된다. 종교의 가르침은 바른 정신 및 속사람이 변화하도록 하였고,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장래에 대한 염려함 없이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도록 하는데 작용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인식하게 된 계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의 바탕에는 신앙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가족’이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자원이면서 변화를 유도하며 나아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 연구에 참여한 두 사례 모두 원 가족과의 관계가 좋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이러한 특성은 범죄행위를 단절하게 하는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 되었으며, 새로운 삶으로 이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공급해 주는 지지자원이 되기도 했다. 사례 1의 경우 원 가족들은 여러 형태로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문제해결과 사회 정착 과정에서 정서적·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사례 2도 이와 유사한데 아버지, 여동생, 형 모두 자신을 돕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과정이 범죄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다. 소속된 공동체는 새로운 생활세계가 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보람된 일을 함께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질 때 자신은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사례 1의 경우 수용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교도소 수용자를 돕는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은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출소 후 새롭게 편입한 공동체는 수십 년 간 폭력배로 살아온 자신을 거리낌 없이 받아 준 곳으로서,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의미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된 생활세계가 되었다. 출소하여 정착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는 것과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해 준다.

넷째,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정체성은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좋은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신이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진 공동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에서 의미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갖는데 기여한다. 연구에 참여한 두 사례 모두 과거의 자신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고 사회에도 해악을 끼쳤지만, 현재의 자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멘토’의 역할이다. 멘토는 자신을 믿어 주는 사람이며, 자신 또한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대개는 존경할 수 있는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출소자에게 멘토는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연계자의 역할을 하고, 정신적·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멘토는 가족을 제외한 범위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이다. 그런데 멘토의 이러한 역할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다. 사례 2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멘토와 접촉하였고 멘토는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된 생활

세계가 된 공동체에 편입하도록 해 주었다. 이에 비해 사례 1은 자기 삶에 대해 주도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여섯째, ‘의미있는 활동’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보람된 활동들, 대개는 자신을 헌신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람된 활동은 자아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것과 깊이 관련되었다. 예를 들어 의미있는 활동들은 긍정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 근거가 되는 한편,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례 1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서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 환자들 이 편안해 하는 것에 보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위치로 바뀌어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자수용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사례 2의 경우,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봉사활동(노숙자 돌봄, 선교활동 등)이 이제는 자신의 사명이 되었다.

일곱째,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물리적 조건이다. 경제적 안정은 생존과 관련된 일차적인 조건이며, 직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연구에 참여한 두 사례 모두 직업 활동에 충실하고 있었다. 사례 1은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한 대가로 얻은 수입을 한 푼의 누수도 없이 의미있게 안배하고 있었고, 사례 2는 아내와 운영하는 가게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가정생활과 보람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탐색된 보호요인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고 가정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이다. 주거는 출소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 가족과의 재결합과 생활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주거가 안정될 때 교도소에서 가장 간절했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일들 또한 수행할 수 있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주거의 역할은 개별 출소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거안정성에 관한 욕구도 출소자에 따라 상이했다.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이 출소자 사회정착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은 사례 1의 경우에 적용되었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례 2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2. 논의 및 제언

출소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대응은 출소자들이 경험한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전과자들이 과거로 인하여 삶을 파괴당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준법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데 형사사법 및 교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갇혀있는 출소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탐색된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을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한다.

1) 내적인 변화를 위한 사업 강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내적요인들의 중요성이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출소자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결과 확인되었다. 출소자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보호요인들은 가족, 멘토, 직업, 주거의 안정성과 같은 물리적 조건들에 더하여 종교, 공동체 소속감, 긍정적 정체성, 의미있는 활동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은 내적인 변화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소자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내적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출소자 지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종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이다. 속사람의 변화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되며, 종교는 내적 변화에 관한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⁶⁾ 내적변화 즉 영성의 변화가 전제될 때,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기술적이고 물리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화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보완되고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6) 미국에서는 교도소별로 종교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Johnson, 2013). 수용자 변화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데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미국의 초기 감옥개혁운동은 수용자의 행동의 변화는 영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그 전통은 세기를 넘어 최근까지 이어져서 수용자를 변화시키는 일은 양심을 일깨우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적이고 내적인 변화는 종교가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Garland et al., 2015).

있다(신연희, 2016). 그런데 범죄자들이 종교와 만나거나 신앙심이 깊어진 계기는 수용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형자의 유종교율이 70% 정도인데(교정본부, 2022: 113), 이는 수용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정정책에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제도적 보장 방안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교는 지역사회에서 동원이 비교적 용이한 가용자원이라는 특성도 있다. 지역사회가 출소자를 배척하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의 선두에 종교와 신앙인들이 있어 왔듯이 이들을 중심으로 전과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출소자가 복귀한 지역사회에서 동원이 가능한 인적, 물적 지지자원을 보유한 것도 종교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기관과 주민들이다.

출소자 사회통합에 관한 종교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볼 때 종교에 대한 의존욕구는 수용생활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소자의 종교는 대개는 수용생활 중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생활 중 목사 및 종교집단에 소속된 멘토 등과 같이 신앙을 기초로 활동하는 교정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을 받았던 수용자들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게 된다면 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Duwe & Johnson, 2016). 우리나라 소망교도소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적변화와 회복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IPIR: Individualized Programs for InnerChange and Restoration)을 수용자 교육교화프로그램의 모델로 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정착 과정에서는 수용된 동안 가졌던 신앙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위치한 종교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교단체들과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갱생보호 전문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출소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다 확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교기반의 민간전문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인데(이원복 외, 2006), 출소자를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종교인에게는 기대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 및 기관이 가진 자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출소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공동체에 대한 소

속감, 소속된 공동체에서 보람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공동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한 행동을 하게 하므로 혹시라도 재발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비공식적인 제재로 작용할 수 있고(사회통제이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네트워크 자본, 즉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장하여 범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하게 되며(사회자본이론), 건전한 사람들과의 차별적 접촉으로 사회의 인습적인 가치 및 신념과 품행을 학습함으로써 범죄적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차별교제이론),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되어 범죄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자아존중감 이론).

출소자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성원들과 이웃이 된다는 것이고 친근하게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출소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 준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정한 사람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일이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술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종교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한다면 출소자가 소속된 공동체와 함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긍정적 자아정체성은 범죄적 활동이나 범죄행동과 관련된 품행을 중지하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jo, 2020, Buckley, 2021). 출소자들은 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출소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의미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용이한 방법이다.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범죄자로서의 정체감에서 이제는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에 반해 전과자라는 편견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가해진다면 출소자는 새로운 정체성

을 형성하는데 방해받게 된다.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제도적 강화

이상에서 논의한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은 갱생보호 제도에 관한 정책과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된 갱생보호 제도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갱생보호 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갱생보호 제도는 출소자의 사회정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범위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와 같이 사회 내 처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소자 사회통합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위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의 ‘재기법(제2의 기회법: The Second Chance Act of 2007)’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사회로 복귀한 출소자와 가족들에게 주거, 교육, 취업기회 등이 제공되었고 사회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JA, 2016). 또한 이법에 근거하여 ‘국가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센터(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재범을 예방하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2023, 인터넷 자료).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출소자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조윤오, 2023; 권수진 외, 2020).

둘째, 출소자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의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갱생보호를 위한 개입은 출소를 1개월 앞 둔 수형자에 대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의 방문상담에서 시작되며, 이 때 출소예정 수형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업의 범위와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출소 후 사회통합에 관한 지원은 교정시설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최종 목적은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 처우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처우 설계는 수용된 모든 기간을 범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수형자 처우의 목적을 출소 후 성공적 사회정착으로 설정하고 처우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선행연구(정영진·신연희, 2006)에 따르면, 수용생활 적응 지원 및 예비적인 처우설계(1단계), 경력관리를 위한 탐색과 도전기(2단계), 출소 후의 직업을 위해 직업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기(3단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사회복귀준비기(4단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원개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시기(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출소자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대상자의 확대를 요구하는 접근이며, 갱생보호제도와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도 늘려야 가능한 일이지만 민간의 기부 및 지원활동을 독려하는 홍보마케팅을 통해 민간자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출소자들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민간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자에 대한 지원은 사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이어야 한다. 내러티브에 참여한 두 사례의 삶의 경험에는 각자 다른 특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출소자마다 개별적으로 살아온 과정과 직면한 상황 및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고 욕구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소자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이러한 특성과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입각해야 하며, 이는 출소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출소자 사례관리의 전문화와 출소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갱생보호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를 출소자에게 적용하였다. 가급적 많은 연구 참여자가 포함되었다면 일반화의 제한성이라는 질적 연구의 한계가 보완되었을 것이다. 두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내러티브 탐구인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미비점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출소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구조화하여, 그들이 살아 온 인생의 과정과 어떻게 범죄자로서의 삶을 극복했는가에 관해 비

교적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출소자 사회정착 보호요인에 관한 체계적 이론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분야를 다루었으므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생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구조화된 양적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적인 요인들이 출소자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한 것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일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출소자들의 사회통합 성공사례가 변화된 삶을 갈구하는 출소자들에게 모델이 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호성,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보호관찰』 제18권(1), 209-252, 2018.
- 교정본부, 「2022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2022.
- 권수진·탁희성·박선영·오병두,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 김숙희, “아동기외상이 초기성인 누범자의 범죄 행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담론』, 16권(1), 95-124, 제 2022.
- 법무연수원, 「2022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23.
- 법무연수원, 「2021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22.
-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 10주년 기념백서」, 소망교도소, 2021.
- 신연희, “출소 후 재범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3호, 191-213, 2008.
- 신연희, “수용자 위기가족의 문제와 지원방안: 탄력성 이론의 적용”, 『한국범죄학』, 제6권(2), 123-156, 2012.
- 신연희, “종교의 조절효과: 수용자 및 가족특성이 가정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정연구』 제10권(2), 83-112, 2016.
- 신연희, 『교정복지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2023.
- 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 집 (Robert R. Greene(de.), 2002. Resilience: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2004.
-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홍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 육성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윤은주, “전자감독 성폭력범죄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전자발찌 성폭력 대상자로 살아가기”, 『보호관찰』, 제14권(2), 237-270, 2014.
-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I);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정영진·신연희,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조윤오, 「미국의 출소자 사회복귀정책 심층분석 및 재언 -리엔트리(Reentry)를 중심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3.
- 최신현·김갑숙, “성폭력 가해자의 비주얼 저널쓰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미술치료학회』, 제25권(6), 873-896, 2018.

- 최영신 · 황정임,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최인섭 · 박철현,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Bajo, M. A., *The Role of Migration, Belonging and Identity in the Desistance Narratives of Migrant Ex-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Dissertation in Kingston University (United Kingdom), 2020.
- BJA(Bureau of Justice Assistance), Second Chance Act (SCA), 2016. Retrieved from <https://bja.ojp.gov/taxonomy/term/second-chance-act-sca-programs>
- Buckley, B., *From Ex-Offenders to Hopefuls: Exploring Changing Narratives and Personal Stories of Desistance*, Master of Arts - Criminal Justice in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2021.
- Clandinin, D. J., & Caine, V., *Narrative inquiry*. In A. A. Trainor & E. Graue (Eds.),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pp. 166-179). Routledge, 2013.
- Clandinin, D. J., "Narrative inquiry: A methodology for studying lived experience",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Vol.27, No.1, pp.44-54, 2006.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 Craig, T. L., *A Qualitative Description of How Reentry Program Experiences Enable Success During Reentry in Female Ex-Offenders*, Dissertation in Grand Canyon University, 2023.
- Duwe, G. & Johnson, B.R., "The Effects of Prison Visits From Community Volunteers on Offender Recidivism", *The Prison Journal*, 96(2) 279-303, 2016.
- Garland, B., Wodahl, E., & Gretchen Smith, R., "Religious Beliefs and Public Support for Prisoner Reentr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pp.1-17, 2015.
- Healy, D., *The dynamics of desistance: Charting pathways through change*. Cullompton, Devon: Willan Publishing. 2010.
- Hix, L., *The Social Function of Redemption Narratives for Former Offenders*, Hix, Laura. Dissertation in Wake Forest University, 2017.
- Johnson, B. R. "The faith-based prison." In F. T. Cullen, C. L. Jonson & M. K. Stohr (Eds.), *The American prison: Imagining a different future* (pp. 35-6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LaFemina, R., *Life During and Beyond Incarceration: A Narrative Analysis in Formerly Incarcerated Men*, Dissertation in Adler University, 2023.
- Laura, H., *The Social Function of Redemption Narratives for Former Offenders*, Dissertation

- in Wake Forest University, 2017.
- McNeill, F. "A desistance paradigm for offender management",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6(1), pp. 39-62, 2006.
- McNeill, F., "Punishment as rehabilitation", in Bruinsma, G. and Weisburd, D. (eds.) *Encyclopedia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pp. 4195-4206, 2014.
- Montgomery, C.A. *The Lived Experience of Formerly Incarcerated African American Males Seeking Reintegration Into Society: A Narrative Analysis of Multiple Episodes, Nonviolent Offenders*, Dissertation in Adler University in Chicago, IL. 2023.
- Rose, D. & Clear, T., "Incarceration, Reentry and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in the Balan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년 Conference, 2002.
- Silva, M., *Examination of the Personal Narratives of Desisters and Non-Offenders: Do They Really Differ?* Dissertation in Temple University, 2016.
- Vaughan, B., "The internal narrative of desista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3), pp. 390-404, 2007.

〈인터넷 자료〉

-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검색어: The Second Chance Act, 검색일: 2023. 11. 17.)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

출소자 사회정착 보호

토론자: 노 병 란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 여기에 소개한 사례들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습니다.

1. 자기소개

나는 1970.11월 교도관에 임용되어 영등포구치소 근무 중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7년)을 졸업하고, 3년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10년 만에 목사안수를 받고, 교정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했고, 1998년 명예퇴직 한 다음,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53년 째 교도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출소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재소자의 가족들이 전부로, 현재도 우리 교인 중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명, 창원교도소 1명, 원주교도소 1명, 여주교도소 1명 청주여자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 등 6명이 징역을 살고 있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2. 사례

1. 의정부교도소 출소자의 성공한 이야기

교리지도가 끝난 어느 날, 만기를 한 달 앞둔 형제가 “목사님, 나갈 때가 가까워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가 더 막막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싱글벙글 웃으며, 감사하게도 사회복지과장님께 고민을 털어놨더니 출소자를 돕기 위해 세워진 천주교 희망저축은행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도소에 찾아오신 희망은행 담당자와 상담을 끝냈습니다.

일천만원을 빌려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출소한 다음, 이 형제는 부인과 함께 우리교회에 출석했고, 땀 흘려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부인과 같이 이삿짐센터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센터에서 1톤 트럭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것을 보고, 사장님께 그 1톤 트럭 분량의 이삿짐을 내게 달라 부탁했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사장님이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 형제는 천주교 희망은행에서 융자 받은 일천 만원으로 1톤 트럭 중고를 매입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족들이 달려들어(부인과 아들)열심히 일했습니다.

출소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0년 지난 지금은 5톤 트럭3대와 1톤 트럭 2대, 그리고 고가 사다리차를 가진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가정은 재소자와 출소자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성수련회(코로나 전 1년에 2회)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형제와 가정이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1. 교회가 있었고
2. 가족이 있었고,
3. 고충상담을 성실히 해준 교도관이 있었고.
4. 막막할 때 도움이 되어준 천주교 희망저축은행이 있었고,
5. 편견을 갖지 않고 도와 준 선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사례 2(시험관 얘기)

신랑도, 신부도 나이가 많아 결혼해서 애기를 기다렸으나 애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학군병 출신의 ROTC 장교인 중위로 제대한 다음,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근무 중 결혼했습니다.

신혼 생활 중 결혼 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예배 때 마다 성가대 반주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애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책 중 하나가 출산 장려인데...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출소자의 사회생활정착에 가장 중요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험관 시술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 붙임 - 수용자 부인이 소장님께 보낸 호소문(실명을 ○○○으로 처리했음)

소장님께

안녕 하세요!! 저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내건축 교육을 받고 있는 재소자의 아내 ○○○입니다. 현재 남편은 징역8년을 선고 받고, 약4년 가까운 시간들을 교정기관 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화 통화 횟수도 늘고, 또 올해에는 남편과 교도소 안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녀를 갖기 간절히 원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보다 더 간절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수감된 걸 모르고 계십니다.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출소했을 때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간 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남편은 바빠서 못

오고 저만 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니 남편이 처가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역정을 내시며 “같이 안 올 거면 너도 내려오지 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까봐 걱정 되고, 전화할 때 남편을 바꿔 달라 하실까 봐 늘 제가 낮에 회사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의 남편이 부모님을 한 번만 찾아뵙게 된다면, 남은 수감기간도 잘 지내고, 출소했을 때 저희 부모님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33살 때인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2024년은 제가 39살이 됩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갖고 기르려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건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두렵고, 제 주변 후배들이며 동료들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을 볼 때, 부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직장에서 애들이 부모님과 함께 뛰노는 것을 보면 부러워 눈물 흘립니다. 앞으로 남편은 4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 나이 43 살이 됩니다.

그 나이에 애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며칠의 귀휴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임신을 시도하고,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남편도 저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수감기간 성실하게 열심히 지낼 것이고, 저도 아이를 양육하며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그 말을 굳게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귀휴를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은혜와 선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험관 시술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려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가정과 많은 교도관님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23. 11.12 재소자 ○○○의 처 ○○○ 올림